朝鮮日報

今日本紙十二面

編輯 發行人 安在鴻
印刷人 林昌洙

京城府堅志洞三十二番地
發行所 朝鮮日報社

代表番號 光化門 二三〇〇番

新聞價
廣告料

時評

窮極의打開策

朝鮮人의見解가如此

×

吾人은 昨年에 本報를通하야 現下朝鮮人의 生活의全局面을 沮塞하고도는 窮極의 打開策과 보다 더 一層의 發展에 對한 方策의 個條項을 各地方人士의 意見에 依據한 바 이 그 答을 바든 條項으로 말하면

一、내 地方의 發展策이 如何
二、農村破滅의 現狀과 그 對策如何
三、商界不振의 現狀과 그 對策如何

等으로서 이는 今日 朝鮮의 都市나 村을 不問하고 生活의 直面에 가로노힌 切迫한 問題인 同時 이 問題의 打開로서만 吾人의 現實生活이나마 그날의 支撑이라도 幾分의 通路를 보일 수 잇는 가장 重大한 무쓸 [illegible]

×

이며 따라 今日의 朝鮮人으로서는 누구나 當하고 또 克服하려는 先決의 問題이다

첫재 내 地方의 發展은 그 地方人民의 生活의 向上과 興隆을 意味하는 것이며 各地方의 發展은 各地方으로 構成된 社會全民衆의 向上과 興隆을 意味하는 것이여서 무롯 과 對答에는 自地方의 發展이 잇스나 그 對策의 各條項은 社會全民衆과 關聯을 짓게 되는 朝鮮社會의 全體的 發展을 意味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各地方人士의 意圖의 綜合斷을 차자보면 그 地方의 輿論과 그 地方民의 現實生活로부터 捲起되는 各種問題를 料理할 수 잇는 團結의 集中形態와 自體의 環境自體生活의 矛盾과 合理를 理解批判할 수 잇는 知識의 普及化를 부르지젓스며 다음 交通衛生等의 特殊部門的의 整備와 發達을 要望하는 두 가지 — 即 團結과 知識이

各地方은 通한 全的要求요 切迫한 것을 알게 되는 同時 이는 今日의 朝鮮人에 잇서서 가장 크다란 問題이며 이 問題의 解決에서 吾人의 生活은 開拓될 수 잇고 幾分의 向上이라도 團結과 知識은 社會生活의 絶對條件이며 이 條件의 完成과 解決은 直接 그 社會人民의 發展과 向上을 意味한 것이다

×

둘재 農村破滅의 現狀과 그 對策에 對하야는 擧皆 地主小作人과의 關係에서 그 對策을 부르지젓스니 이는 今日의 朝鮮人에 잇서서는 階級的 見解를 써나서 한 人道上 問題로 轉化되는 農村問題의 一面 展形態로 볼 수 잇는 重要한 論題이다 農民이 全人口의 八割强을 占하얏고 또 小作農民이 農村人口의 約七割을 占한 朝鮮에 잇서서는 萬一 小作農民의 生活에 對한 徹底한 打開策과 保障이 업다면 今日의 朝鮮農村은 더 危境으로 轉向될 것이며 따라 農業을 唯一의 本業으로 하는 朝鮮에 잇서서는 小作農民의 破綻은 그 影響하는 바가 全體的이인 同時 地主資本家의 共同破綻을 보게 되는 무엇보다 先決의 要求하는 全體的 重大問題이다

×

셋재 商界不振의 現狀과 對策에 잇서서는 民族的으로 利害를 달니하는 外來大資本의 侵入과 商業知識의 未開와 經營方法의 幼稚等으로 不振의 現狀인 同時 朝鮮人本位의 融資機關의 設立과 各種商工業에 對한 知識의 普及化이며 農村의 救濟로서 購買力의 增進을 말하얏다

그런데 吾人으로서 가장 注視를 요하는 바는 融資機關의 設立問題이니 萬一 朝鮮人으로서 商工業에 對한 信用設定이 幾分의 充實을 가젓다면 商界로 하여곰 今日과 如한 不退縮의 悲運을 急速度的으로의 途着은 안되엿스리라고 미드며 따라 商工界에 對한 知識의 普及化와 購買力의 維持도 附隨될 줄로 안다

伯林의共產黨員이 日本大使館을襲擊

勞農露國을擁護코저

【伯林一日發電通】 數名의 共產黨員은 三十一日 深更 日本大使館에 襲擊하여 赤으로 [illegible] 石을던저 窓硝子多數를 破毁하고 逃走하엿다 右와가티 『사베－트』로서 아편을 擁護키爲하여 서라는 글을 씨조에도 赤布、써허잇슴으로 共產黨의 所行인 것이 判明되엿다 犯人은 아즉 逮捕되지 안핫나

安奉線諸處

中軍襲擊狀況

【奉天二日發電通】 安奉線一帶中軍은 其後도 頻繁히 線路를 襲擊하려는바 一日夜로부터 今朝까지 狀況은 如左

一、一日午後九時五十分 湯山城驛西方一里 平山驛에 九十名中軍이 來襲하여 湊湖에서 警官隊가 討伐에 向햇고

二、歪頭山北方十一中里 小甸驛部落에도 八十餘 中軍集團이 襲擊準備中이라는 急報로 守備隊가 討伐에 向햇고

三、一日午後一時 通遠堡에 中軍數十名이 來襲하여 同地警官派出所守 佐美巡査는 左腕에 貫通銃創을 바닷나

四、一日午後六時十分 頃又五龍背驛을 與하고 內構信號用 電柱二本을 切斷코 山中에 逃走햇다

嘉村旅團의先鋒隊

今朝錦州에入城

東北軍死守의最後陣地도

畢竟日本軍이占據

【奉天二日發電通至急報】 嘉村旅團의 先鋒第一第二裝甲列車及騎兵一隊는 今朝六時 錦州에 入城햇다 그리고 嘉村旅團의 本隊는 今日午後 大凌河에 到着하는 室師團長의 第○○師團主力과 隊伍를 整理하여 今日夕刻이나 明早朝 入城할 터이다 (午後零時半着電)

日軍의前衛隊가

大陵河를占領

無人地境갓치進擊

【奉天一日發電通】 軍司令部發表＝午後四時 日本飛行隊의 報告에 依하면 中軍討伐軍의 先頭는 一日午後三時 大凌河를 渡하야 大〔凌〕河甸을 占領하얏다 中軍은 抵抗치안코 錦州에서 續續 西方에 向하야 退却中이다

【溝幇子日發電通至急報】 今朝 溝幇子를 出發한 多門師團及嘉村旅團의 前衛部隊는 無人之境을 行함과 如히 西進하야 今夕五時 小凌河(錦州의 東方三里)의 左岸에 到着하얏다 今夜는 此處에서 宿營하고 二日早朝 錦州에 入城의 豫定이다 (午後八時三十五分着電)

室師○○旅團

溝幇子로出動

【奉天二日發電通至急報】 室師團長은 麾下第○○旅團의 第○○聯隊、第○○聯隊及○砲兵○○隊에 溝幇子以西에 出動의 命令을 下하얏다 此等軍隊는 今朝七時五十分 奉天發 ○○方面에 向하야 出動하얏다

【奉天一日發電通至急報】 溝幇子以西의 中軍討伐의 命令을 受한 室第○○師團長은 ○團司令部의 幕僚를 同伴하야 今朝八時 奉天出發 ○○方面에 出動하얏다

【奉天二日發電通至急報】 本庄軍司令官은 今後의 中軍討伐에 對하야 一日 多門、室 兩師團長에게 對하야 作戰命令을 發하얏다

二月十一日을期해

滿蒙自由國成立

【奉天一日發電】 日本軍의 匪賊討伐에 恐怖를 늣긴 錦州軍權은 一、錦州西方에 潰走하여서 滿洲匪賊의 根源은 殲滅되게 되엿스나 더욱 滿洲에 [illegible]를 어든 全滿에 醞成되여 잇든 滿蒙自由國의 建設計劃은 漸次 確定이 되여서 二月十一日에 建國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日前에 行한 奉天省民의 聯匪運動會와 가튼 것은 其第一勝이라고 볼 수 잇는 것으로서 大여 모든 에 今般 滿蒙自由國

六百中軍의一團이

大窪驛日軍襲擊

激戰三十分後退却

【大窪卅一日電通特派員發至急報】 去二十九日 日軍多門○師團에게 擊破되여 潰走한 中軍 三千은 昨夜來 大窪北方에 集結하야 其數가 五、六百에 達하야 今曉 一時에 大窪驛守備의 日軍○○聯隊를 受하야 兩翼에 多數의 彈丸을 受하고 機骨一本을 적기우고 九時二十分에 歸還하엿다 (午後零時二十分着)

數十名中軍襲來로

白旗堡서兩軍衝突

交戰半時後中軍退去

【白旗堡一日發電通】 一日午前五時頃 數十名의 中軍은 白旗堡驛西方에서 襲來하여 日軍은 交戰三十分後 此를 擊退한 바 右 中軍은 昨朝及昨夜에 互하여 頻繁히 白旗堡、新民府間에 襲來한 中軍의 一派인듯하며 白旗堡駐屯의 日軍姬路部隊○個中隊는 柳河溝駐屯、尾越部隊와 함께 今曉부터 新年勞頭의 中軍討伐戰을 開始하엿다 그리고 昨夜 打虎山에서 饒陽河에 歸還！途中에 就한 日軍列車는 饒陽河附近에서 中軍狙擊을 바덧스나 此를 擊退하여 無事歸還하엿다

【奉天卅一日發電通至急報】 ○ 隊는 出發한 後 行衛不明이 되엿다 生死의 事實도 判明되지 안어 今朝六時 北島中隊長은 搜查하기 爲하야 同方面 出動하엿스나 中央으로부터 小銃機關銃의 一齊히 射擊

日軍偵察機

行方不明돼

【奉天三十一日發電通至急報】 三十日午後一時 奉天을 出發하야 打虎山方面에 中兵情狀偵察에 向한 小野軍曹、同伍長의 操縱하는 ○

最高軍事會議에서

灤河線에後退決定

中央에는援助를電請

【北平一日發電通】 張學良氏는 三十一日夜 最高軍事會議를 開하고 職員을 根本的으로 變更한 後 灤河線에 後退키로 決定하엿나 但 對內關係上 中央의 命令대로 抗戰한다고 錦州를 死守한다고 稱하여 이미 中央에 對하여 實力援助를 乞한 바 返電이 업슴으로 總攻擊을 目前에 두고 救키爲해 八百萬元과 武器彈藥을 急送하라고 電請하엿다

應援部隊着奉

【奉天卅九日發電通至急報】 ○偏川 松江○○聯隊近衛輜重兵○個隊及自動車隊衛生隊○○○名은 今日午後五時着 列車로 奉天에 到着하엿다

事態樂觀은尙早

表面撤退는하나

六萬別働隊가遍在

【天津一日發電通】 錦州一帶에 散在하는 東北軍은 約四萬으로 此全部가 完全히 撤退할는지는 疑問이다 又學良氏가 昨秋來 募集한 別動隊는 十萬에 達하야 其中 約六萬이 錦州를 本據로 하고 日軍의 背後를 威脅하려고 今後도 正規兵變造隊와 呼應하야 蠢動하려고 하야 東北軍이 表面으로 撤退하엿스나 事態는 到底히 樂觀을 不許한다고

安奉線各處에도

中軍出沒頻繁

鴨綠江岸도橫行

【奉天三十日發電通】 鴨綠江岸의 馬賊은 日本軍의 警備不足을 乘하야 二十九日 渾水砲에 낫하나서 附近을 橫行하며 安奉線 鷄子 冠山東方에도 六百名의 中軍이 鷄에도 四五百名中軍이 나타낫고 鷄行을 하고 잇스며 鴨綠江岸과 安奉線東部一帶는 依然히 不安狀態에 빠저잇다

姬路第○旅團

打虎山을警備

【打虎山卅一日發電通】 姬路第○旅團은 三十一日午前九時 打虎山에 到着하여 山田少佐指揮下

依田旅團

打虎山에出動

【奉天卅一日發電通】 依田旅團은 嘉村旅團의 後續部隊로 今朝六時 奉天發 打虎山方面에 出動햇다

人跡업는

錦州城內

日偵察機情報

【大石橋一日發電通】 本日初偵察飛行을 한 大西高橋兩大尉搭乘한 ○○의 報導한 情報에 依하면 日本軍의 ○○師團及○○旅團의 先頭騎兵部隊는 北寧線을 따라서 無人之境가티 石山站驛附近을 南下中이며 大陵河의 防禦陣地에는 거의 中軍影子를 보지 못하겟고 錦州城內도 가장 寂寞하다 또 錦州에서 山海關에 이르는 사히에는 依然히 人馬를 滿載한 數個의 列車가 關內를 向하여 서 疾走中이며 中軍의 裝甲列車는 거우 一列車만 連山驛에 잇슬 뿐이고 連山에서 錦州에 至하는 各驛에는 二百乃至五百의 各部隊가 開城보이나 此等은 列車輸送을 기다리고 잇는 것 갓다

新民、白旗堡中間에

日軍討伐隊出動

依田增援隊도追送

【奉天卅一日發電通至急報】 嘉村旅團의 打虎山進出에 伴하여 新民府白旗堡等 中間地區에 中軍이 橫行함으로 此를 討伐하기 爲하여 今曉六時 ○○聯隊는 同方面에 出動하엿다 繼續하여 新增援의 依田○○의 第○○聯隊도 出動하기로 되엿다 (午前十時着信)

秦皇島驅逐艦

司令官의聲明

【天津一日發電通】 錦州軍의 撤退에 伴하야 山海關方面의 形勢가 險惡함에 鑑하야 秦皇島에 碇泊中이던 第○○驅逐隊司令○○中佐는 山海關駐屯 何第九旅長에 對하야 三十日附 左의 聲明을 發하얏다

日軍은 軍艦球磨를 秦皇島沖에 碇泊하고 잇스나 目的은 居留民의 保護이엇고 東北撤退兵으로 日本居留民及守備隊에 危害를 加하지 안으면 其撤退를 阻止할 과 如한 行動은 取치 안키로 決定하엿다

八面鋒

○ 新年勝頭 日本軍이 錦州에 入城

○ 『錦州만은……』이라고 問題이르켜오든 聯盟의 態度가 볼만 한일

○ 二重過歲廢止！ 當當한 소리지 만 가난하고도 複雜한 우리네 生活에 잇서서 緊急한 問題의 하나

白旗堡退散兵이

郭家屯에集結

新民府를逆襲計劃

【新民府三十日發電通至急報】 白旗堡의 戰鬪에서 日本裝甲列車外에 擊破되여 北方에 退却한 中軍은 午後四時頃 新民府北方 郭家屯에 集結하야 附近中軍과 連絡을 取하야 더욱 其勢를 增大하고 잇다 (午後七時四十分着)

【新民府三十日發電通至急報】 郭家屯에 集結中의 中軍敗殘兵은 午後五時 新民府商務總會에 對하야 速히 武器彈藥及軍資金을 調達하라 不應하면 新民府의 燒却을 하겟다고 脅迫書를 보냇스나 此等敗殘兵은 何時 新民府에 襲來할는지 不知하야 新民府는 危險에 直面하엿다

【奉天卅一日發電通至急報】 ○○○村旅團에게 代하여 停車場에 司令部를 設하고 村井少將의 名으로 日本軍의 出動은 學良氏軍及散兵討伐에 잇고 良民은 괴롭게 하지 안는다고 布告하고 又 打虎山驛員四十名을 招致하여 來旨를 傳케 하고 業務에 就케 하엿다 그리고 村井少將과 旅團司令部은 午後八時 到着하엿다

中軍義勇隊가

羊腸河鐵橋破壞

日軍은修理에着手

【打虎山卅一日電通特派員發至急電】 昨日의 激戰으로 日軍裝甲列車에게 擊退된 義勇軍及別動隊는 大凌河方面에 潰走하엿스나 其時日軍의 前進을 阻止하려고 打虎山西南二里의 劉家窩棚附近의 羊腸河鐵道橋를 破壞하고 其他 數個所의 鐵道橋를 破壞하얏슴으로 日本○○旅團先鋒部隊는 滿鐵의 鐵道修理班과 協力하야 今朝부터 그 破壞鐵橋의 修復을 急히 하고 잇다 ○○旅團의 一部는 徒步로 前進하고 自動車隊及騎兵隊는 鐵道의 兩側을 急速度로 進軍하야 三十一日午前十時에 其先鋒은 이미 溝幇子에 肉迫하고 잇다 (零時五十分着電)

室○○師團

北寧線에出動

【奉天三十一日發電通至急報】 奉天移駐를 終了한 室○○師團은 明一日早朝를 期하여 奉天에서 出發하야 北寧線에 出動하기로 되엿다 (午後零時三十分着)

湯玉麟獨立決心

對張絕緣코三省連繫

不日天下에宣布할터

【奉天一日發電通】 熱河에 잇서 形勢를 觀望하고 잇든 湯玉麟氏는 獨立을 決心하고 近日中에 張學良氏와 絕緣하고 奉天、吉林、黑龍江省과 連繫할 旨를 宣布하기로 되엿다

兪鎭泰氏

一死不避의氣慨! 犧牲的精神의高峰

무관학교학생륙백명동맹휴학시에 전책임을가루맛혼의긔남아조성환

半生의最大感激 (二)

偉大한社會에는 偉大한感激잇서서

감격이업는사회는퇴패하고감격이업는 개인은 타락한다 거치른물결에 흘리어가는인생에게 한번감격의 파도가 용소슴칠때에 능히천하를 집어삼키고 개인의가슴에 한번감격의 열정이 타올를때 바위와 무쇠를녹히독이여낼수잇슬것이다 그러나 한사회전체와 한개인이 크고또거운감격에넘칠때는 반드시 그사회전체가울족이고 그개인의 억세고운을못도며주는것이니 그민족과개인이 위대하면 위대할사록감격에넘치는사실도위대한것이잇다

이제약관(弱冠)에이르지못하야 큰뜻을품고 [illegible]채로 서울에올러온후삼십여년야인(野人)으로써그반생에커다란업적을남기고잇는유진태(兪鎭泰)씨의 반생을 통하야서 최대의감격은 무엇이엇든가 ― 선생의 입으로부터이야기를들어보자

武官學校이름뿐 行政은頹廢莫甚

갑오년(甲午年)개화당(開化黨)김홍집(金弘集)내각이성립되여비로소 조선에서새로운 진보의 긔운이 돌려고하다가 그이듬해을미(乙未)년에 이내각이 친로당(親露黨)의 책동으로 석구러지고마럿나그영향을바더서조선에서 비로소 무관학교(武官學校) 가설립되고 륙백여명의학도를양성하엿다 그러나 당시부패한정사는 비록이러한 원대한목적을가지고 설립한학교로 훈련바든 이들로하여금 군직에 나아가게하여야 될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궁중을 둘러싸든협쟁이광대 등신지 패들로조곰이라도 권염에 [illegible]인것들을군대의요직으로 새 [illegible]하고실상무관학교의학도는 대부분그대로내버려두엇다

六百餘名學徒 一齊히同盟休學

그러나 그때군긔(軍紀)의 혼란은 휴교를 이르키고마럿다 몰론이 무관학교 학도들이 이와가티부패한사실에 인종하다못하야 당시 륙백명중 구십명[illegible]무관학교학도들이 크게분개하고 일제히 사발통문을돌이여서 동맹휴교를 이르키고마럿다 몰론이 [illegible]

[illegible]더할것도업고 규률이되지안엇스나 얼마나 한심한일이엇느냐? 이와가티 몃해지낸무술년(戊戌年)(一八九七)자긔들의정성과노력을 다하야 국가만일의일이잇슬때 목숨을 맛기지안이하고 나아가려하든 긔개잇는

발달된 오날에도 동맹휴학을하면크게떠들거든처음버당시터구나군며가이와가티 일제히 동맹을 이르키엇스니 얼마나놀나운 일이엇겟느냐? 윈보하가 발근무진하고 조정에서크게 확접하야 일시장안이 놀랠놋이발단하엿다 그러나 무관학교학도들은 다만당시 써어진인사행정에 불평이잇섯슬뿐이요 정권(政權)에대한 반항을하려고하지안엇섯슴으로 무긔는일제히두고서 몸만교외에 나와버렷섯다

卽時捕吏軍活動 連日酷刑코拷問

이와가티 큰사건에 부닥친조정에서는 무긔를 갓지아니한것만 다행히여기에서 곳포리를식히어 소위반역한학도들을 전부잡어가두고 염되두고 몸슬병파한매를 하여가며 주모자를차즈섯다 그러나오백사십여명의 학도들은 임케히 구든철사로붓드러맨듯이 앙을당울고 발설만되면사형을밧을줄 모자를고빼하지안엇섯다 이럴스록그들에대한형벌은더욱가혹하야참아밧지못할악형과고통을바더서발톱이못도엇섯다

義氣男子 曺成煥 全責任을혼자저

이때에가 가장그 의긔(義氣)에 감격한 조성환(曺成煥)이가 자긔 동시들의 고통을보다못하야 그들을구하고저 죽기를각오하고 전부책임을혼자지고나가주모자라」 고자진하야 그사건의 전책임을 지고나섯다 인심이란약한고 타락하야 우연만하면사긔가한책임도 회피하려하던 그때인심에 발각만되면 곳사형에처할일을 당하기를 실허하거던 돈오십원 당하기를 실허하거던 [illegible]

專責한自己犧牲 平生의最大感激

내가 당시이사실을보고 동을에 가슴이 터지는것가티고인몸이 자드트하며 눈물이나도모르게흘더 무엇이라고 말할수업는감격을 늣기엇다 이것은지금생각하여도 가슴이 뭉클하고 애닯푼생각이난다 그후조성환은 사형의커단을 바덧스나당시법부대신이던민영환(閔泳煥)씨가여러번눈물을흘리고어전(御前)에 간곡하아뢰운 까닭에차라로 사형을면하고 종신징역의관결을 바덧다가 을사(乙巳)년에노히어그후곳중국으로간후삼십여년을 방황하는모양이다 이것이내가 평생에늣기고넘치엇든 감격의 하나이엇스며지금도조성환의일을생각하고그불운에크게동정한다 (사진은유진태씨)

小作關係訴訟漸減

爭議手段은過激化

示威와直接行動露骨

五年間各地方法院統計

조선의농촌은 해마다빈궁하야가고 지주(地主)와 소작人(小作人)의거리는머러지며 이계급대립(階級對立)에서 여러가지쟁의(爭議)가 격화하야가는중그의통계는 그절마다 보도한바잇거니와 소작관계의 소송(訴訟)사건을보면 오년간에전조선십개지방법원에서 취급한것이삼천삼백구십팔건의 다수에달하엿다 그리고 오년간의통계를비교하야보면 전주(全州) 광주(光州)법원에서취급한것이수위를점령하야 전라남북도(全南北道)의농촌 상황을말하고 잇스며해마다다소 고하(高下)의 변동잇스나 점차감소되여 가는현상인데이것은 근래조선의 소작쟁의는원충 격화함으로 말미암아재래에 미미하게 법정(法廷)에호소하든 수단을버리고 시위운동으로 농민이결속하야 소작료불납동맹(小作料不納同盟)을조직하며 문서를소각하는등 과격한행동으로 전화된것을 증명하는것이라한다

五年間小作關係訴訟事件 (第一審)

法院	昭和元年	同二年	同三年	同四年	同五年	計
京城	四九	五八	二八	五二	三一	二一八
平壤	四一	四〇	三七	三一	三二	一八一
大邱	一〇三	七七	七〇	八七	七四	四一一
公州	二二	五九	四五	一六	一四	一六六
咸興	七	七	—	—	—	一四
新義州	四	一五	一一	一五	七	五二
海州	五九	四四	二七	二三	一五	一六八
釜山	一一七	一八〇	一六四	一一三	一二七	七〇一
光州	一一四	二三四	一六六	一三〇	五三	六七七
全州	一一四	二〇一	一二三	一五一	二一一	八〇〇
全計	六四〇	九〇五	六七一	六一八	五六四	三三九八

自動車一臺 江中에墜落

【平壤】 십이월삼십일오후한시삼십분경에 황해도곡산군 멱미면(谷山郡覓美面)대동강상류어름우를 통과하든 운전수강희석(姜希錫)의 조종하는담배(煙草)실은 화물 자동차가 어름이 깨여지면서 강중에 떠러졋섯다 손해는일천여원에달하엿고운전수는간신히 구조를바덧나 동일오후세시 삼십분 동지점을통과하든 조철(趙鐵) 소유인림태진(林泰鎭)승합자동차(乘合自動車)가또강가운데 추락하여 대소동을 일으켯섯스나승객과 운전수는 부락민들에게구조되엇다한다

協定價反對 大會召集決議

【準備委員多數選定】 咸北鰮油業者大會

【淸津】 지난이십팔일오후한시청진공락관(淸津共樂館)에서는 청진에잇는 함북온유비제조업자대회가 개최되엿는데 의장으로리창인(李昌仁)씨그리화윤(李和潤)김수호(金周鎬)량씨를선거한후 의사를 진행코저할때에 림석경관으로부터 집회허가를마를때 바청을금지한다는 조건이잇슴으로 방청을 금지식히라하야 한참소란되다가 방청자들이 자퇴한후 의사를진행한바첫재 초과온유비가격협정에 의하면 오십오전이나 실상원료가 될케하고도 오십팔전의 생산비를요하는터이라하야 이를반대하고삼릉재벌(三菱財閥)과일본정게를토난하고 또 그지회하에잇는 지[illegible]가림석경관에게 주의를밧고 결국이문제에대하야는 제조업자는 그협정가격에는 온유비를 팔지안키로결의하엿나 그다고온유비통제안 (鰮油肥統制案)에 대한 반대의 토의를 하려든바금지를 당하고금월 륙일청진에서전함북제조업자대회 (全咸北製造業者大會)를개최하기로결의한바동대회의 준비위원은 다음과가티선정하얏다

淸津 金秉倫 森 野 崔在勳 張鼎三
漁大洋 坂口幸吉外四名
會寧 鄭容鎬 金龍雲 安昌國
李學烈 岡 崎
明川 金禹相 金成祿
但經費及事務所는任員에게一任

被檢同志奪還의 襲擊計劃發覺

무장경관과군대출동경계 ◇石建坪爭議續報

【鍾城】 지난이십칠일밤에동관진주재소(潼關鎭駐在所)에어떠한방면으로 정보가 드러왓다는데 그내용을탐문하건대 그날간도석건평(間島石建坪)에서소작단지도자 삼십명을 검거하여온일이잇섯는바 그곳 쟁의단원칠백명은 그경찰의 간섭에분개하여검속된동지 삼십명을 도로찻기로하자는 결의를하고 단원들는밤을타서 일케히 동관주재소(潼關駐在所)를 습격하려하엿스나 그정보가 즉시동관주재소에듯기자 주재소는 대경실색하야시내에게망을 엄중히 하고종성경찰본서에 응원대를 청하고 종성수비대에서까지 출동하야 방을 새워가며 엄중한경계를하엿다 소작쟁의 단도그러케를밟고 습격행동을 명단간중지하엿다하는데이십칠일밤은소란중에보내고익일인이십팔일은일번렬차로 삼십명은 무장경관에게 옹호되여 룡정(龍井)령사관(領事館)으로호송되엿다 한다

入獄同志扶助

【西平壤】 금번칠월평양평원고무공장(平元고무工場)의녀직공대파업사건이생겻슬때 파업

靑島同胞家에 拳銃强盜潛入

【靑島】 [illegible]

産業知識普及班

平壤은五日부터 사리원에서는대황영

【平壤】 본사와 천도교(天道敎) [illegible]

警官과地主協力 五十餘村民檢擧

대부분은석방하고몃명만억류 城津鶴上農組事件

【城津】 경관과지주등이촌민을 포위하야 오십여명의검속자를내이고 촌민의 공동경작의피해사실이 청진사건의 가장강경한거지요 검거풍이 [illegible]

▲李鳳男(二七)▲許昌吉(二五)▲許線鳳(二三)▲許太鳳(一八)▲許千年(三三)▲金完錫(二二)▲許國鳳(一九)

茂朱에火災

【茂朱】 전북 무주군읍내하리 황봉인(黃鳳仁)집에서는지난삼십일오전일시이십분경에발화되여 [illegible]

二百餘勞働者集結 箕林勞組를創立

대부분은자유로동자들망라 大會도圓滿히進行

【西平壤】 신흥도시 (新興都市)로발전되여가고잇는 서평양에는 각방면의발달에따라 화물(貨物)이 폭주(輻輳)하여한산로동자들이 운집하엿스나 아직로동자의 단결이업슴을 유감으로녁이고 [illegible] 긔림리로동조합 (箕林里勞働組合)을지난이십팔일 오후칠시부터서평양 [illegible]회당에서 개회하엿다 정각전부터모여드는 이백여명의로동자가 참석하여 김대화(金大華)씨의 개회사와 취지설명이잇슨후 림시의장 한희인씨 [illegible]

精神異狀의 哲學者가殺人

◇金泉街頭의慘變

【金泉支局電話】 삼십일일오후령시반경에 김천황금정(黃金町)에잇는 [illegible] 자수하엿는데 몽도평소부터 철학(哲學)을 연구하든 사람으로 정신에 몰연 이상이 생긴것으로 추측된다하며 피해자는 즉시절명하엿고 가해자는 엄중취조를 밧는중이라한다

新賓에土賊橫行 同胞들被害莫大

백주에다수금품을쌔앗기고 ◇一名은被打致死

【奉天】 최근오지신빈현(新賓縣) 일대에는도적이창궐하야 동포의손해가막대하다는바지난십오일동현하구문(下口門)부근에는 백주대도상에 구명의도적이나타나서 지나가는 행객을 중국인조선인을 물론하고 모조리뭇집고 소지품을 전부강탈한바그중에는 동포사명도 석겨잇서사람으로 당하지못할 욕을당하고현금 대양백여원과 의복천부를쌔앗긴바 조난자의 씨명과 액수는아래와갓다

▲富門許成麟六元▲同朴應煥四十元▲同文天賢三百六十元

運動競技

同志社高商과對戰 普專軍快勝

三對零의白熱戰으로 高專럭비蹴球大會

【大阪支局特電】 第七回高等專門學校럭비蹴球大會에朝鮮代表로出戰한 普成專門軍은二日午後零時二十分부터花園球場에서同志社高商軍과山口主審下에對戰하야三對零으로普專軍第一日豫選에快勝하엿다

全東京勞働者 蹴球大會

在東京朝鮮人中心으로組織中에잇는 [illegible] 準備會에서는 資本主義스포스奬勵에反對하야 프로레타리아스포스競技를積極的으로奬勵하여오든바 正月一日에創立大會를開催하고 二日에品川埋築地에서全東京勞働者蹴球大會를擧行하는데各團에서多數參加하야盛況을豫期하고잇다한다

YMCA運動部 今年度스케듈

少年籠球의첫計劃

中央基督敎靑年會運動部에서는 今年中 同會主催에關한 十二[illegible]競技大會豫定『스케듈』을다음과갓티決定發表하엿다

朝鮮運動競技史에 絶大한功獻을남긴同會에서는 今年부터特히少年運動을普及시킬目的으로 第一回籠球大會를開催할計劃을세웟다한다

1 第一回全朝鮮籠球自由投籠競技大會(三月)
2 第五回全朝鮮卓球選手權大會(四月)
3 第十六回 室內運動大會(四月)
4 第一回全朝鮮少年籠球大會(五月)
5 第二回全朝鮮籠球選手權大會(五月)
6 第五回 全朝鮮씨름大會(六月)
7 第五回全朝鮮拳鬪選手權大會(六月)
8 第八回와第四回全朝鮮中等學校及專門學校籠球選手權大會(九月)
9 第四回全朝鮮醫體柔道大會(十月)
10 第五回 全朝鮮力技大會(十月)
11 第二回全朝鮮機械體操大會(十月)
12 第六回籠球聯盟戰(十一月)

運動界動靜

▲黃乙秀氏(拳鬪選手) 二日朝歸京하야 本社來訪

우리의아式蹴球 優勝하기까지

世醫專 金俊成

(一)

十二月二十四日夜九時五分! 漢陽의이時刻은바야흐로구비치려는물결이 알지못하는숨은힘을가지고구비치려는그瞬間! 우리一行十三名은 監督吳漢泳敎授引率下에 [illegible]地를向하야 必勝을期하면서 떠낫다

달이빗치여 히웃 히나나는漢江의잡힌어름을바라보며 어지러운머리를가다듬어 이길을떠나는우리들이 이즈러이즐수업는 면일은그만두고 갓가운出發前의사흘동안――『스포스맨』의慾望 이로因한環境의咀呪와義憤 落望 다시적은希望의變遷樂을, 다시한번울려보기로하엿다

二重過歲廢止! 新年正朝禮式

七十餘名이會合하야 啓明俱樂部서擧行

시내인사동(仁寺洞)에잇는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에서는이중과세(二重過歲)를폐지하기위하야신력정조례식(新曆正朝禮式)을 거행한다함은 긔보하엿거니와 동구락부에서는 작일일오후비시정각에 약칠십여명이 회합하야 다음과가튼 순서에따라서 청녀히 식을마치엇다는데 조선에서도 양력정월을 세모(歲暮)로실행하기로 천천히실행함에 도움이크다한다

一、開會 總務理事尹宗夏氏
一、祝歌 (애국가) (梅花歌)
一、奏樂 鄭淳哲氏 新氏新君
一、賀拜 同相向敬禮
一、獻歸 名帖과啓明曆進呈
一、報告 幹事白南奎氏
一、祝賀辭 崔東植 尹致昊 朴勝彬 柳東說 [illegible]諸氏
一、唱歌 『첫날』
一、閉會 啓明萬歲三唱
一、紀念撮影 一、餘興

日曜講話

▲貞洞敎會(午前十一時) 金鎭浩
未定 (午後七時) 金仁湜
未定

天氣豫報

흐리고눈와

昨日最高 一、八 最低 零下二、六
今日正午 一、〇〇

새해새살림 —(3)—

自由結婚의新家庭訪問記

러브그라운드의春色 運動界兩花形의家庭

運動家李榮敏氏夫人李寶貝女史

새해첫날이라고하지만언제나 한가지로 쓸쓸하엿다 다만그러나새해의 새희망은 조선사람의 누구나 머리속에 그리고잇슬듯 긔자는 동대문밧 숭인동(崇仁洞) 채석장아래에 『스윗홈』을 건설하고 화창한노래가 끈이지안는리영민(李榮敏)씨의가정을 찻게되엿다

영민씨는 누구든지 다아는조선야구계의 『명성』으로 엇더한운동이든지 특이한기술을 가지고 잇는동시에 경성운동장이생긴후처음으로『호무런』을친사람도리영민씨이다 그리고 부인리보배(李寶貝)녀사는부유한가정에서 고이고이 자라나고유량한피아노소리에 천사와가튼생애를맛보는동시에 조선 녀자정구(女子庭球)계의패권을잡고잇서서 려인(麗人)이오 스포-쓰껄로도 그의명성을 드날리든조선의딸이다

이러한방면이가튼두분이결합이되여 지금에두살된 ᄯᅡ님 일천(一仙)아기와 넉달된 경천아기를 다리고 평화스러웁고 행복한생활을 하고잇다

때마즘 리영민씨는 외출을하고 리보배녀사만이 경천아기를품에안고서 잇섯다 긔자는 리보배녀사에 안내로 방안으로들어갓다 마루에는 란로를피우고책상등 여러가지를노앗스며 방안에는 ᄭᅢᆨ긋한침대가 노여잇고책상우에는 운동계에관한 서적들이잇섯스며 영민씨와 보배녀사가바든 찬연한 은컵들이 노여잇섯다 어듸로보나 운동가의가정이엿섯다

『영민씨는어듸가시엿나요』

『네아츰을잡수시고 나가셧서요 항상집에계시지를 안어요 밧그로다니시기를 조와하시니까요』

『학창시대와 지금의가정생활에어느때가 조흐십니까』

『맘만해도 학생생활이그리워요』

『영민씨와 결혼을하신지가 몃해나 되시엿나요』

『만삼년이되엿습니다 참으로세월이 ᄲᅡ르기도해요』

『서로아신지몃해뒤에 결혼을하시게 되엿나요』

『일년후입니다』

『두분이서로아신동긔는요?』

『지금부터사년전에 련희전문학교와 리화학교가 경성운동장에서 정구시합을 할적에 그이가 심판을보시엿서요 그래서 그ᄯᅢ부터 알게되여지금 이와가티되엿답니다』

하면서 미소를ᄯᅴ이며 아미를숙인다

『그뒤에 두분은자조만나셧나요』

『네 일주일에한번씩만나서산보를다니엿답니다』

『결혼식은어듸에서 하시엿나요』

『정동례배당에서햇서요』

이와가티 두분은 아신지일년동안에 서울에서도 인적이드문십 로 멀로 산으로내로 정열에 타는두젊은녀의 행락(行樂)의 움을무엇슬듯 이제로부터 삼년전 나무에 새싹이돗고 ᄭᅩᆺ봉오리밧 싯웃는시절에 거륵하고도 센치멘탈한『파잎프오간』에발마추어 목사에 압헤나아가 백년의서약을한것이엿다

『참으로두분은 행복스러운가정을이르시고 게십니다 방면이갓고의사가마즈시겟스니까요』

『그럿타면 그럿켓스나 넘어방면이가트니까좀단조(單調)한때가잇서요』

『엇지하야 그러신가요』

『서로운동가의 성격을가지고잇는때문에 서로굴복치아코서 생각한바의견을 그대로주장하야 나가니까 자미스럽지는못한때가 잇지안켓서요?』

『그러시겟습니다 어느때는부인이지서야지요』

『압흐로는 그럿케해야만되겟서요』

『영민씨가 집안살림을잘하시지요』

『네잘해요 남자로써처음봣서요 무엇이든지 손수다사가지고 드려오서요 저는아무것도하지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살림을잘한다고 언제든지 칭찬이놉답니다』

『영민씨는 운동이외에무엇을 조와하시나요』

『그저운동이지요 조와한다면음악임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퍽보아도 사랑하서요』

『부인은 엇더한방면임니가』

『저도그래요』

『영민씨가 『호무런』을 칠때마다 퍽깃부섯겟습니다』

『네……』

하면서 수건으로 입을가리며웃는다

『그리고 영민씨가운동하실때마다 반드시구경을 가시겟습니다』

『가고는 십지만가지를 못해요애아버지가 구지말리니까요 어린아이를 다리고오면 어린애적에 운동을 할수가업다고해서요』

『부인은 학생시대에 몃번이나대회에 출전을하셧나요』

『일학년때부터 이이까세일수업습니다』

『운동하시든중에 어느때가깃부셧습니가』

『조선녀자로서 제일처음으로 일본녀자와 시합을해서 우승귀든 바덧슬때입니다』

『지금은 대회에출전하실생각이나지아느십니가』

『왜안나갓가요 그러나할수가잇서야지요 어린아이들이 잇스니까요 작년에도 출전은햇지요만은』

『래년에는 엇더케하실작정임니가』

『애아버지가 미국으로가시게되는때문에 엇더케 될는지모르겟습니다』

『영민씨가 미국으로가시면가티가십니가』

『아니여요 저는친정으로가서 잇겟습니다』

『조선의녀성 운동에대하야생각하신바가잇습니가』

『별로히생각한바는 업습니다만 지금학교에서 거행하는 것과가티 운동도가정화가 되엿스면 하는생각을 가지고잇습니다』

이와가티 이야기하는 동안에황혼이되여 행복스러운 두유사의가정을물러나왓다

◇사진은 행복의봄을마지한때에남몰래박힌두분의사진

當選콩트

晩秋의 金魚

成昌彦

넓은 공회장안은 관객으로 잔득찻다 R양(孃)의 제일회 독창공개회엿다 청실이 재능 담 명칭을엇고저하는 야심무진 공개회엿기에 초녀객은 모다음악에대한 감상력보담 돈잇는 『부로춘』녀성이엿다 나는한개 『푸로』로서 요행이어동광을 엇게되엿다

□……□

장내(場內)는 비를 시 꽉찻승으로 나는부득이 녀자석 우편 좁은길목에 서게되엿다 소란한박수에 붉은미소를ᄯᅴ려가며 R양은 무대에나섯다 화려한그의자태가 오권축권핑에 더욱빗낫나 단소한피아노 반주에 그는입을열엇다 사는들은 숨죽이고 귀를기우렷다 부드럽고기운찬 쏘푸라노가 R양의연반잇술 새여 고요한장내에흡넛다 「범맨야안」의 아름다운 「메로듸」에 사람을은 혼(魂)을빼앗겻다

□……□

나는 벽에몸을기대이고 소위예술의법열(法悅)에취한 녀자석을 훌터보기시작하엿나 독적이 R양의독창을듯기보담은 푸로의나로서는 접하기어려운 부루조아녀성들 물색(物色)함에 잇섯다

그들의우선 용모와 치장는 참놉나웟다 목을들어 R양의 입술만 처다보는그들의얼골는 언케한번 괴로움에 씨우녀본적이잇는것갓지안엇니 혈색조흔 우미(優美)한살빗은 핑상이큰기와집속에 나양옥속에 뭉쳐온사쾌락을낫보는 행복에서저진얼골이엿다 그들의몸에서 발산하는향취는 아름다운사태와아울러 그들의긔품(氣品)을 더한층고결하게하엿다

□……□

나는맨낭이도 내가슴에그들의기름진몸뚱이를 힘ᄭᅥᆺ쉬어안고십은 충동을늣겻다 그러나 그들의덤우도화려하고 아름다운자태가 나로하여금 스스로 그들의살님과 나의살님에 크나큰 간격이잇슴을늣기게하엿다 나는한숨을 길게쉬고실망과부터운생각에눈을 슬적감엇다 그순간이엿다 나의눈에는새삼스러히햇쓱한얼골에 부자연한 미소를ᄯᅴ이고 지나치는남자에게눈짓하는 병들어절마골이 련상되엿다

예술의쾌락경에 취하야잠자는 아름다운인어(人魚)와마굴속에파뭇치여 가혹에신음하는 더러운해골들 이두가지의대상은 너무나모순된량극(兩極)이엿다 그러나 나의생각은 한발압흐로거름을실하엿다

□……□

『나의이 밀려가는해골의피는 쾌락에잠자는 인어들의밥이다』

이가티 생각되자 ᄯᅩ나의괴억에는 커-ᄂ보서아××당ㅅ의 점점이나타낫다 력사적변천으로돌여난 백계귀족녀(白系貴族童女)들이일시에 행복을일코주림에못이저 곰개곰개 직허온 순결을 리방인(異人)의품안으로 딸녀단니든정경이엿나 삶은위며하다 삶의압헤는 모든것이 희생된다

독창하는 모양이며 그의음청에취한 인어들의(中略)정상도내눈압해 나타난다

나는눈을들어 그들의얼골을 훌터보며 속으로한갓련민(憐憫)의정을늣겻다

독창은끗낫나 공회당문밧흔 사람들의 떼에목메엿다 주인찻는자동차의 『싸이렌』은이곳저곳에 요란하엿다 나는한갓 애착을늣기가며 녀자들틈에석겨잠간 몽기뭉기하엿다 쌈에서ᄭᅢ인그들은 감격에넘치는상과된얼골들 내흔들며 검은자동차속에 모다홉수되여 버렷다 나는혼자남어 멀어저가는그들의뒷모양을 바라보앗다 세상의쓰고압흔괴로움을 맛보지못하고 꿈가튼살림에서 고이고이첫장한 그들의(中略)미래를생각할때 ᄯᅩ내마음에련민의정이이러난다

□……□

『너의들은 행복은한때의 꿈이니라(中略)……』

나는이가티 속으로 중얼거리고길가에 널려잇는 돌멩이들 발길로차버렷다

돈 돈•돈•

職業女性面面相 (1)

떽파-트껄의 外奢內苦의浮華한生涯

하로열네시간노동에겨우화장품대

우리는 이미직업녀성들의 새로운포부와새로운출발을 보앗거니와 가난한인텔리녀성으로서 갈곳이직업전선이니 이들의 내면생활과 기타를 드러뒤로이직업전선에나아울녀성들의 한참고를삼고저하며 그들의직업장을방문하야 ᄭᅩᆺ가티어엽브고 젊는그들의배아난얼골의주름살들을 가엽스나마보고자한것이니다 그리고압흐로도 그들의손으로 그들의생활권과 그정낭한대우를 차저오도록하엿스면…하는것입니다 호화로웁게 그날그날을살쌔니지내는똑가튼 시절의녀성도잇지만이러케주림을면하라고 직업전선에서싸호는 안날의거룩할그들의 괴상을보라!

뙤파-트! 우리의일용품을비롯하야 장신구(裝身具) 화장품(化粧品) 기타무슨 물건이거나 구비하야잇는 『뙤파-트』는 경성(京城)의 대도시에도 뒤어생기게되엿다 그리하야 날마다밀리어드는 고객에게 편리를 도읍고 만족을주기위하야 ᄭᅩᆺ다른처녀들이『뙤파-트껄』로 『써-비스』를하고잇다 현재 『뙤파-트』로서대표될만한곳은 명사월부터 개업한백화점동아(百貨店東亞)를비롯하야화신(和信)、동아부인상회(東亞婦人商會)농삼개소와 남촌(南村)일본인 상가에도사사개소가잇다

이 가티수만흔곳에『써비스』하는 조선처녀들은 대개십오륙세로부터 이십세ᄭᅡ지 가장빗이왕성하고 리지가명석하야 보통학교를나진 사람이 백여명에 달하는외에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재원들이그수가 점차늘어서이백여명을 돌파한 현상이다

그리면그들은무슨ᄭᅡ닭으로부엇을 바라고수련긔에잇는 학업을폐하고서 날마다 아츰아홉시부터 밤십시ᄭᅡ지나 구름가티밀리여드는 남녀고객을 상대삼어 『써비-스』하고잇는것인가!

그중의대부분은 물론 일개의 녀성으로서 독립생활을 할만한 의긔를 가지고직업상에 낫타낫슬것이지마는 일시의 호긔심으로또는 어느딸하지못할

자극을바더서 나왓슬 사람도잇슬것이나 대개는 생활난을 것이다

그리하야 섬섬약질을 도라보지안코 날마다십사오시간 노동에대하야 그들의보수는 엇더한것인가 일정한표준는 세울수업는일이지만 대개는 그들의화품값도 되지못하는것갓다 고울표준으로하는 처지인만큼 의복과 기타화장을 남부그러웁지안케 치장하여야할것임과 동시에 류행에뒤지지안코 애를쓰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실킹는 『실크、스 (毛皮)에인외투도 어느것하나도 필보치아니한것은 업다 속모르는 사람의눈에는 천사터아름다웁게보히는 그들의 활내막을 탐구하면 실로눈물운장면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뙤파-트』껄 『한사람의말을 건대

모 백화점에서『써비-스』하는 는낙보기에는 퍽안락한 생활을하는것가티 보일터이지마는 그리면 에는 말못할쓰라림이 잇습니다 한달에공휴일(公休日)이란 다만일요일밧게업는데 만일우리가 특별한 사고나신병으로 다만하로라도 쉬게될ᄯᅢ에는 일수를 계산하야 월 되지안는 월급에서 이를감아버리니 그수입이라야 겨우 일신을 장식하기에도 부족하며 어느때에는고객에게 말할모욕을 당하고도 하소연할곳이한군데도 업스니 우리의 커지는실로형언할수업습니다 그럿치마는 모든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녁이며 그것으로위안을 삼고지내감니다』

(사진은뙤파-트-껄)

社告

本報平南特派員金奎珍君은事情에依하야解任하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本報平壤支局을左와如히變更하엿사오니愛讀者諸位는照亮하시압

名稱 平壤支局
位置 平壤府水玉里
支局長 金鳳官

朝鮮日報社 白

本支局員金仁錫君은事情에依하야解任하고左와如히任命하얏사오니愛讀者諸位는照亮하시압

記者 高璨

朝鮮日報平壤支局 白

本報康津支局을左와如히設置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名稱 康津支局
位置 康津郡邑內
支局長 朴東煥

朝鮮日報社 白

本支局員을左와如히任命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總務兼會計 金相容

朝鮮日報康津支局 白

本報遂城支局을左와如히變更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名稱 遂城支局
位置 遂城郡邑內
支局長 崔昌淳

朝鮮日報社 白

本支局員을左와如히任命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記者 徐有駿

朝鮮日報釜山支局 白

本支局西倉分局을左와如히設置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名稱 西倉分局
位置 熊上面西倉
分局長 金道洪
總務 崔恩澤
記者 郭載賢
會計 朴俠德
顧問 崔吉澤
同 金千

朝鮮日報梁山支局 白

本支局員을左와如히任命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記者 薛東鎭
記者 金敬中
寫眞班記者 金永昊

朝鮮日報神戶支局 白

朝鮮運動의今後方向

◇各團體要人諸氏의見解

지나간 일천구백삼십일년은 조선운동(朝鮮運動)에잇서서 여러가지점으로 괴롭할만한 중대한사실이 만혓나 눈부심히뜨고 널리 세계정세(世界情勢)를 살피는것은 고만두고라도 우리는 조선안에서 이러난 세계적 규모(規模)의 사실을 지적할수잇스니 첫재 작년봄부터맹렬히 시작되어 오늘날 유야무야로 문을닷치게된 신간회해소(新幹會解消)의사실, 둘재 ○○○재건설도 말미암는 수만흔 경찰검거사건과셋재 전보다될충경제적 항쟁에서정치적항쟁으로 접근한 긔록을지은 평양(平壤)고무직공의 총파업을 비롯하야 평등포, 인천, 부산등지의로동쟁의(勞働爭議), 넷재 함남홍원(洪原)을 비롯하야 영흥(永興), 성진(城津), 고원(高原) 정평(定平) 단천(端川) 북청(北靑)등지와 및 평북 룡천(龍川)에서 잇섯든농민들의 폭동×쟁등실로주목할만한 중대사건등은 무잇을 말하는것인가? 좌익(左翼)은 어대로몰고 나아가며 우익(右翼)은 어느곳으로 민중을 이끌려고 하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조선은 어대로 가는가? 이에 이문제를 구명하고저 조선운동의 금후방향에대한 견해(見解)와 주장(主張)을 각단체의 요인으로부터 들어 이에소개하는바이다

設問

一、新幹會解消에對한貴見如何

四、汎民族的表現團體再建設可否

新幹解消不當 再建은不可避

農民事件研究必要

協議會 徐廷禧氏 談

一、나는일천구백삼십일년을 회고할때에 신간회해소를가장유감으로생각합니다 신간회를조직할당시에는 조선이라는 특수칭을가진 지대에서 이가튼진민족적 결성체인 단체조직의필요를 늣긴까닭이라 합니다 그런데 조선이 이러한중대한 필요에서해탈(解脫)되어 이른바 특수성이 소멸된 형적이 업다는점으로보아서나 해소를 주장하는리유의 준비된 력량이 불완전한 점에서 이러한 초조부지한 해소는조선운동선에잇서서 만흔 중대한과오를 범하엿다고 단언합니다

四、신간회해소를특수한우리조선에잇서서중대한과오(過誤)를범하엿다고본나로서는그과오들과오대로방기(放棄)한다면뉘케를문제할 필요도 업습니다마는 과오를 희오하야 다만한대표적×생긔과즉 민족적 표현단체의재건이 잇지아니하면 아니될조선인동시에 물론 재건될것은 추세인까닭에되고말것입니다

唯一指導者는 ○○的階級

勞農層擴大强化는事實

프로藝盟 林和

一、신간회해소문제에대한진정한××주의적평가(評價)는언제나우리가 신물을 평가할때가지는바 광채잇는 굉조적맑쓰주의의방법을 가지고보아야 할것이다 다시말하면 시간회ㄴ것의대한대중의 해소의 요구그것은넛더한추상(推象)인 교리(敎理)에서부터가 아니라 조선××적프로레타리아ㅡ트가일천구백이십륙년이후 육체를 가지고체험한고험에 충만된기인력사의 정확한평가를 긔초로하여서만 신간회는 해소하지아니하면아니될것인가라는명제(名題)의가장뚜바른 회답을 어들것이다

신간회창설당시에잇서서조선헌도들뒤흔들고잇든 대중의 통일전선에대한 렬망을 ××적프로레타리아ㅡ트써가그것을××주의적으로시도하는내신으로도 이민주의의 오유를가지고 하엿다는것에서 또한그러한 오유를산출케한 모든조건(?)조선의×××자 계급이야

지도부

축도 어리엇다는것 농민의하층을백배의 동맹자로서 획득하는데잇서서 아즉도족으만 소득밧게못가젓섯다는것 특히 소뿌르중간층에 잇서서의 경향의미소하엿나는농의 조건은 불행히도우리몬서 지도부로하여금 일년의인민주의적 견해를가지고 반××주의 통일전선을 아래로부터강고히 전개할것을 불가능케한것이어다 그럼으로 신간회내에잇서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헤게모니』는운한문제도식실로 제규적으로 해결치못하고 간부의의자적텅니 원시주의가지배한것이엇나

그럼으로 신간회의 해소는무엇보다도 그동안의 급격히성장한로농자계급의 힘을 반영한것이며 그정치적영향이 소뿌중간층을파악하기 버릇는것을 의미하며 동시에엇더한 시긔의××적프로레타리아로하야금 원시적농병의 체절이 가능하다는 환상을가지게하는 민족적 뿌누소

四、범민족적 표현단체의 재건설의 필요를 일커는는자가잇다면은그것은 주(主)로 아래의부류에 속하는두개의 정치적조류(潮流)를대표하는것이나 처음의 한아는과거의 조선사람×주의의

운동을

청산주의(淸算主義)의 독소(毒素)로가지고파괴하거든특수조선(特殊朝鮮)의대장들이다 시급시장(市場)의일홈을엇기위하야간누의 의자를 매수키위하야푸로에 파괴아래의 일홈과조선○○운동을 인민주의(人民主義)의진구렁이로쓰러내리려누최악의기도와 아즉도 민족뿌루조아지에게 그무슨정(性)을차저보려는경하할만한『사회』수의자누리의 ○○적반 ○국주의통일전선의 사실뇌적(敵)이잇고들재로는 신간회 해소투쟁의 홍수속에다 불행히도 그들의정치적활동과 무대를 상실(喪失)한이론바 좌익민족주의의영원히 보담되지안는것에대한

정치적

욕망의표현인것이다 그러나이두가지의 조류속을 지배하고잇는 아름나운 환상이불실적괴츳는 이미근저로부터 파괴되엇스며 따러서 범민족적표현단체의 (紙上)에서자치주의적향수로상족하기위한 허울조흔 구실에불과한것이다 오즉 현재의조선에잇서서의 권민족적××의 유일지도자는××푸로레타리아트그것이며 그것이전개하는바 로농자계급의 영향아래의 농민을그동맹자라고 그의 모ー든반××주의적 요소를포용할수잇는 아래로부터 광범한 통일전선그것이잇슬뿐이다 만일범민족적표현단체의긔도(企圖)가조금치라도 현실화된다면 이우에적은바두부류의것이자치주의의로접근하는또한개의중간계단(中間階段)이되는이외에 아모것도아닐것이다

表現團體 再建設必要

다만시긔문제가잇슬뿐

中央佛教 韓龍雲氏 談

一、신간회해소문제는이미넷날이야기 갓습니다마는 신간회해소는 정당히 한것이아닙니다 혹평으로 말하자면 소위해소를성공하엿다는 일부의 그들은착오적리론과 엇던충동으로 피동적(被動的)으로 조선운동을,그르친죄과(過罪)를범한것입니다

四、표현단체재건설문제는필연적으로 결성될것이고 당연히조직하여야 할것임니다 그러나여긔에는 시긔문제가 잇는것이니 아직은어려울것입니다 계급운동(階級運動)무슨운동이부문적으로 필요하지마는 조선운동(朝鮮運動)이라는것이필요합니다 인도(印度)에 인도운동이잇는것과가티!

◇一灘月金景源畫伯筆一◇

新幹會解消는 當初부터誤解

基督青年會 玄東完

一、신간회 해소에는 본시부터 반대의견을 가지고 검사위원의 한사람으로 반대하엿든만큼 오늘까지 해소가잘못되엿든 운동이엇다고 생각합니다

四、여러가지의미로보아범민족적인 표현긔관의 재건설을내단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은 신간회가 탄생할때와가튼것으로 되어야 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대로 두엇드면

表現機關時期問題

農民社 金秉濬氏 談

一、신간회해소당시에는필연적으로 해소되는것이고 또당연히해소하여야 될것이라고 생각하엿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와서 조선운동을보고 또해소후에 무순활동과 우리모든것을 대표할만한단체를 가지지 못한것으로 보면 신간회라도 그대로두엇드면차라리 나엇스리라고 늣기는것이최근의솔직한생각입니다

四、표현단체는다시결성되리라고 밋습니다 그러나여러가지사정으로보아 시긔가 문제임으로얼마후가아니면성과노흘것입니다

一以堂金殷鎬畵伯筆

經驗訓鍊蓄積 自然結成待望
【農民騷動도一過程】
天道教 李鍾麟氏 談

一、나는신간회 해소를 반대하든한사람임으로 이에대한 의견은다시 말할필요가 업습니다

四、범민족적표현단체재건설문제는 인류인이상에는 사회적집단(集團)의 가부를 론할배지가 업는것입니다 그러나현하우리의내외정세로 본다면 엇더한일정한 주의와 강령아래에서범민족적단체의 재결성의 불가능할것은 신간회가이것을 설명하고잇지안슴니가 그럼으로 금후의우리운동ㄷ 일이잇는 그때그때에 한가지될씩을 목표로하야그결과를 맷고맷고 하자는것입니다 그리하야 여긔에서경험훈련을 싸아나가다가 자타의주의와 리해를구별할수 업는그도두에다다르게되면 누구의 술모빌려(出懸施)를기다리지안니하고저결로결정될것이며 또는현하우리민족은 이러한 단체를요구하고잇습니다

再建設反對
平壤罷業失敗도一利
解消委員 權泰彙氏談

一、신간회해소문제에대하야는 해소로주창하든 한사람이고 또현재해소 과정에잇는만치 다시문제될것이 업슴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해소를오해하야 해체(解體)도 동일히취급하는 사람이만흡니다 해소는결코 아조해체와 해산이아닙니다 무슨운동이나 어느과정에서 비약(飛躍)의 질(質)로서의 발달이오 진전이지해체는아닙니다 신간회가해소를 결의한후 그간판으로서 활동은하지못하는 형편이며 또당해해소동맹(解消同盟)의 일홈으로 해소운동을 촉진할것이되 그러치도못하나 해소를무르짓는 사람은 간판이업고모힘이 업드라도 각기해소운동을 하고잇슬것이며 또하고잇습니다 그리고새해일천구백삼십이년에는신간회의간판이 아조떠러질것입니다

四、해소를주장하는의미에서 표현단체 재건설은 물론반대함니다 우리가 결코조선의 민족운동을배격하는것은 아니나 그따위의 표현단체를 가지고는 민족운동도 아모것도 수행할수 업는것입니다 이해소의 과정을 과정한후바케(反醱)(小器)의냥태의 운동에까지는 반대하여야만할것입니다

四、표현단체가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문제는 그표현의형태가엇던것이나에달리울것이라고 봅니다 나는표현단체가 존재할것을 인정하는 한사람이올시다 그러나그것은 결코민족주의의 만의단체에서는안됨니다 사회주의자가 좌익민족주의자가 이현실에잇서서 피차에 리해와 희지를 가리하는 꼭동한사건을내여걸고 경제적 또는정치적농번 리익(經濟的及政治的當面利益) 획득을위한 시간적 사건적 협동과의 표현적으로잇서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결국 신간회와 맛찬가지의것을 의미하는것 갓흔야결코그러치안슴니다 재래의 신간회는그 조직형태에 잇서서머리로부터내리 조직인걸 알이 업지안하여서 좌익요소를 충분히내포(內抱)하지못하엿고또그밋에잇서서지극히 관념적이여서 대중의실지 생활과는 그거리가넘우도 머럿든것임니다 그럼으로내가지금 말슴하는 협의과관그것은신간회 그것과는 스사로리든과실체를 달리하는것이 아니면아니됨니다

여하간나는 대중적이오 현실적이오 ××적인 정치×××단체가출현하기를 기다리고 잇습니다

해소가이러한 비정상적대중의 힘으로 가결이되엿기때문에 가결이후의 해소활동이 충실한표로레타리아적방법과 그요구대로 진행되지못하엿다

何必曰民族主義
形態不問도必要
自己階級擁護는當然
衡平社 張志弼氏 談

一、해소되기전에는그러한단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엿스나 해소되고보니 그것이머세에의한것이니만치정당하다고는생각하나 여하간 이너한단체가아모래도 하나생기엿스면 조켓슴니다 넘우대담니 몽농합니다만 그러한 단체를하나두고서 그것은 한긔관으로 버려두고라도 부스는놈이든시험수잇슬런인데 하필 해소할필요가 어대잇섯는지 알수업슴니다

四、아모리 표현단체가업스나 쓸쓸하기 짝이업는 이때에잇서서 표현단체가 하나생기게된다면 그것은정하함날이지 결코낫븐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겟습니다 그러나나는그것이 머지안흔장래에 엇떠한 형태로써든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때엇더한 형태로생길른지는 알수업는날이겟지오만 표현단체가 불원하며서 생길것만은처는밋고잇슴니다 하필민족주의단체가 생겨야만 한다는것은아니고 엇더튼 표현단체의발생은나로서는찬성합니다

四、오늘조선에잇서서는범민족적협동단체란 존재할수 업는것이다 그러나 간판만붓은 천민족적리익운운하는 단체가 생기나지안는다고 말하지못한다 그는 사실는전민의 리익을도모한다면서 존재되는자보다 ××과학가튼존재인것이다 범민족적협농 운운하고 나서는그집단은 천민족이 총망라되지못할것은 너무도명백한 한일이지만은이는 사실에 잇서서민족을파려 정치행상을하고 민족의미명을 내세워계급적 대립진출을진압하려는 미족색르조 소색르들만의 한계급적 코겔에 떠나아가지못하는것이다 로농자농민및 진보적 무산빈족은 이를단연코 반대한다 그러나 그들나오지 못하게는 하지못한다 그는 우리가 국민협회엿평사상공협회등을 업새지 못하는것과가튼그러한힘의문제이다

解消準備不充分 方法도現實無視
當面利益獲得이必要
全農社 李晟煥氏 談

一、신간회해소의가부들지금와서 토론한대야 그것은별서싱복후에 약방문과 밧찬가집니다 이제 지나간일을 펏토한다면그것는그뒤의업적(業績)을비판하는것이 가할것이지만 불행한처지에잇는 우리들은 해소××위원들을활부대에등장식혀보지못한것이유감이다 지금에와서라도 구태여 해소가부를말하라고한다면 나는이러케말슴하고십슴니다 신간회가존재하기때문으로 로동자 농민운동이 그발전상 방해가되는것 어라면 신간회를 해소가아니라 차라리 해산이라도 될것이나 그러나 신간회가 그형태에잇서서 또는그조직에잇서서 로동자농민운동의 확대강화를 의식적으로방해하는점이업섯다고하면우리는 도리혀 신간회와가튼협동××당(協同××黨)이 필요할것을압니다 그리고 전작해소라는그본의대로 신간회를 해소할필요가잇섯다면 그것은 조선에잇서서 로동자농민운동이 임의협농××당을 필요치안타는 원측이 확립되지아니하면 안될것임니다 사불하면로동조합과농민조합이질(質)로량으로독자적(獨自的)하게모니들의심업시확립할수잇는때에 잇서서 끝네적으로필요한 일이라고 밋슴니다 그러나 우리조선의 현실로보아서 로동조합과 농민조합의수를보아서 아직까지 해소운동을준비할시긔라고는 볼시어정 해소하여버릴때라고는 생각지안엇슴니다 그것은 결코리론이아니라 실제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요 신간회가 로농자농민운동에 방해되는 존재이엿다면 그러면 해소된뒤에는 로농자농민운동이 더욱확대되고 강화되엿야될것이 아님닛가 그러나사실상 그다지 그대와 상부(相副)되지못하는것이 현실인데야 엇지하나까 그러고 임의협농××당을 해소해버릴때가 되엿나는 리론이 존재할수잇다면 적어도 엇서서진목적(準備的)로농농민조합이강력적(强力的)실제행동이잇서야 될것이아님니까 그러나의리는 실제는파화적, 또는수자적비관을 무시할수 업느니만치 신간회해소의 준비가불충분한천과 또그방법이 넘우도현실을 무시하엿든것을 지금와서늣기게됩니다 적어도 계급적분화과정이잇슬것이라고생각합니다 나는 원측적으로는 신간회해소를 가하다고하여도 그수단방법 그리고그시긔와 준비에잇서서는 적지아니한 유감을늣기는비이올시다

汎民族的團體 存在는不可
政商의釣名策일뿐
社調所 李南鐵氏談

계급적대립이 첨예화한 사회에잇서서는 사물의그어느것에 대한것이든 그호부(好否)가 그계급적립장을따라 달리하는것이다 그럼으로 신간회해소!이것드 례외업시그범측을 업숙하는것이니 푸로레타리아에게 잇서서는 이익해소가 칠대적한승리의약진인것이엿다 그러나민족색르조아및색르조아계급에게 잇서서는 『해소』이것이 한멸망적실패의 표현으로 되지아니치못하는것이다 그럼으로 푸로레타리아는 이를날뛰면서 조화한다 이배면색르조아및 민족색르조아그들은 꽉이나쉬섭하게 애석을늣긴다 그러나 이는텁대편념 유희적표현인것이아니라 움직일수업는 력사적사실로서 각자계급의 물질적리해관계의대립 그첨예화로서 그리한것이다

해소! 가되엿나고는하여라 이는통제잇는 푸로레타리아 권위—(조선의그것)—의××적행동과 부합되여서 된것이아니라 대중이생상하는 자긔과정에서 그들요구하게되고 아울터 실천하게되엿것이엿만큼 퍽무통케불긴실이 되지아니치못하엿다 한가지괴구한 현상이잇는것은 작년오월 해소를가결한 그천체대회에출석안 칠십칠인의 그대의원은 그의절대다수가 소시민층이엿건만은 해소안이 단이인의반대를제한 칠십오인의거수로 가결된것이다 이는일견하면 무조건하고 승리에도의 약진을갓는 푸로레타리아의 힘인것가탯지만은 또다른한편의 잇서서는

白蓮池 雲英氏 試筆

昭和七年元朝祝賀
朝鮮日報社
[illegible]
白蓮池雲英

可否批判의 時期아니다
尹亨植氏談

一、이에대하여는 간단하게 대답하기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니만치 그대답이 불충실할터이니까 일반의 오해를 사기쉬봉으로말슴드리기거북합니다 후일이에대하여 자세히써보고저합니다

민족주의고 무슨주의고 그단체가 표면으로낫타나 그행동을보기전에는 엇떠타고 말할수가업습니다 그러나까 만연한민족주의단체가 생긴다고하나 그것의행동을 보기전에는 무에라고말하기어렵습니다

協議機關으로 常設必要切感
槿友會 禹鳳雲氏 談

一、신간회 해소는 해소리론이 정당하엿섯다고 생각합니다 계급운동으로서는반듯이잇서야할 운동이잇다고봅니다 그러나그만은그에대신할 하동의부엇이업시 되엿다는것은 지금퍽섭섭히 생각하고 그결과표현운동(사실은할수도업스나)의침체가더심하엿다고봅니다

四、계급운동으로서보다 조선인된자로의 공통된 리해절과에잇서서 종래의협동전선 이라는것보다 협동협의긔관으로 전민족적인 상설표현긔관을 설치할필요를만히늣기고잇습니다

謹賀新年

善山

京釜線龜尾驛前 丸口運送店直管 米穀綿布購入業 金融倉庫社 主任 金利龍 電話六番

善山郡高牙面文星洞 新酒 松竹酒 海酒 文星釀造場 主任 金誠河

京釜線龜尾驛前 學校評議員 權聖重

龜尾市場 綢緞布木 永昌社 主 金寅默

善山郡高牙面文星洞 共信商會 主 金象鎬

善山郡高牙面文星洞 宋在寔

善山郡長川市 長川酒造組合 金東碩

善山麴子組合

善山郡邑內 寫眞師 申金石

善山邑內 司法代書 金光鉉

京釜線龜尾驛前 司法代書人 金鍾漢

善山郡玉城面 우리살님社

京釜線龜尾驛前 專務理事 龜尾消費組合 黃冀遠

龜尾七星會

京釜線龜尾驛前 ① 運送店 主任 金基培

龜尾市場 거북선표代理店 主 申駿遠

日新洋服店 洪聖大

龜尾市 裵雲龍

龜尾驛前 金鍾自轉車店 主 琴春福

龜一理髮館 主 宋中憲

龜尾驛前 李錦蘭

龜尾驛前 太平堂藥房 主 宋大憲

龜尾洋服店 主 尹彩雲

龜尾市場 西洋雜貨 各種染色 劉南烈

龜尾驛前製絲所 職員一同

善山邑莞田洞 尹命壽自轉車店

京釜線龜尾驛前 永生堂醫院 金斗守

善山郡邑內 善山十五日會

京釜線龜尾驛前 醸酒 燒酒 龜尾酒造場 理事 洪學善

善山郡朝鮮酒造組合

善山郡邑內 善一酒造組合

善山郡高牙面 大成酒造場

善山郡高牙面新村洞 泉源酒造場

善山郡海平面 海星酒造場 金演昇

京釜線龜尾驛前 米穀商 金載藏

京釜線龜尾驛前 米穀商 徐丙熙

京釜線龜尾驛前 米穀商達成商店 主 金達默

京釜線龜尾驛前 米穀商 金定東

京釜線龜尾驛前 米穀商 石川宗平

京釜線龜尾面松亭洞 米穀商 朴世元

善山郡山面新基洞 米穀商 全晚植

善山郡海平市 海一商店 主 崔元浩

善山郡邑內 米穀商 金允培

善山邑莞田洞 林永振材木店

善山郡善山面竹杖洞 崔中洛

善山邑內 慶善自轉車店 主 鄭夏基

善山郡邑內 沈相琨

善山郡玉城面 面長 朴泰薰 會計 金象東 外職員一同

善山郡舞乙面事務所 職員一同

善山振興商店 金振石 金興石

桃開砂防事務所 車相漢

桃開砂防事務所 職員一同

高牙砂防所管內 元湖洞工場 職員一同

山東砂防所 職員一同

善山郡海平市 司法代書人 沈載完

善山郡山東面 事務所職員一同

善山郡高牙面新村洞 金珍培

高牙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善山郡善山面新基洞 李相萬

善山郡桃開面 面長 盧鱗夏 會計 沈載鮮

善山邑內 千一峯

善山郡龜尾面元坪洞 醫生 李榮兢

李榮相

善山郡高牙面元湖洞 學校評議員 金圭默

龜尾市場 景一院藥房 崔在鵬

高牙警察駐在所

善山郡高牙面元湖洞 金喬默

善山郡山東面東谷洞 安學韶

善山郡長川面事務所 職員一同

長川金融組合 理事 具泰周

山東面積源洞 曾根佐吉

善山郡海平面事務所 職員一同

善山郡龜尾面 職員一同

善山郡高牙面外叉洞 尹容植

善山郡高牙面新村洞 金鍾萬

善山郡龜尾面新浮洞 金鳳泰

善山郡龜尾面新浮洞 裵相禹

善山郡海平市 渡邊隼藏

善山郡龜尾面市場 大成自轉車店 主 朴壽孝

善山郡龜尾面元坪洞 李在和

龜尾市場 大濟堂藥房 李錫成

龜尾市場 金聖培

若木 若泉酒造場 飮食店組合 組合長 金相元

特約物產 委託販賣 劉鍾泰 一名邦佑

若木精米所

自轉車店 鄭長五

綢緞布木 鄭壽植

姜來鳳

若木金融組合 理事 金永漢

雜貨商 鄭鶴基

若木面協議員 朴禮用 趙德瑞 陳秉斗

若木面 面長 申鉉九 面書記 全榮玉 洪聖祚 申鍾湜 面技手 尹慶遠 朴寅植 吳石祚 山林技手 李定在 柳光吉

李圭鉉

千一淸

雲館 李虎鎭

北三面 面長 張炳國 面書記 張禹鉉 張禧相 許鑑 張九鉉

宋謙淑

李鍾成

石積面 面長 李源甲 面書記 金基玉 張社勳 金熙忠 朴鳳羽 山林係 張炳奎

北三面協議員

張亨植

張明植

代書人 李源福

石積酒造場

金三斗

若木編入商會 吳性慧

趙秉濟

若木理髮館 鄭大洛

旅人宿 安鶴仙

若星館 金相元

司法代書人 金聲漢

安信泰

李海哲

柳河成

土木請負業 朴喜穆

張龍俊

雜貨商 趙雲濟

金禹成

柳昌植

張憲相 張周植

李圭相 金永珪

北三酒造場

若木學校評議員 張永植

北三 金宇植

石積 張昌熙

石積 張敏植

朝鮮日報若木分局 申海均 張世華

善山郡高牙面新村洞 金光培

洪城

忠南洪城邑 貿易商 黃錫俊 電話二二番

洪城邑 朝鮮日報社洪城支局 支局長 朴源植 局員一同

洪城邑 忠南自働車部 電話二〇番

忠南洪城 湖西釀造合名會社 電話洪城四五番 振替京城一九七三八番

忠南洪城邑 朝鮮甲種料理 湖月庵 主 李鍾奎 藝妓 金玉蘭 同 孫桃紅 同 金雲仙 同 金桃花 同 崔玉珠

洪城停車場前 和洋料理 扶桑軒 主 李東漢 電話五七番

朝鮮忠南洪城邑 內外雜貨 食料品 直輸販賣 槿園商會 裵英燮

洪城東門外 朝鮮甲種料理 京洪館 主 曹寧梁 藝妓 鄭桂紅 同 孫玉仙 同 要紅蓮

洪城驛前 淸一釀造場 ㊂㊀古岩運送部 主 金元圭 電話九六番

洪城郡廣川市 吳世鎭寫眞館

洪城郡洪州面 面長 李廈永 職員一同

洪城邑 株式會社 東一銀行洪城支店 支配人 李恒鍾

忠南廣川 廣川公立普通學校 校長 寺地與一 職員一同

洪城郡高道面 面長 洪祐鳳 職員一同

洪城郡龜項面五鳳里 龜月釀造場 主 萩原美枝

洪城郡結城面 面長 鄭行直 職員一同

洪城郡 財團法人 洪城育英會 電話六番

洪城邑 有志 朴敦圭

洪城驛前 洪城麴子組合 電話五五番

洪城郡高道面上村里 中樞院參議 金炳鴻

洪城邑 十五日會

洪城郡結城面邑內里 金炯[illegible]

洪城郡高道面上村里 葛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洪城邑 時計 眼鏡 蓄音機 洪城時計店 主 李琪

洪城邑 崔泰鎭

洪城郡高道面上村里 高道釀酒組合

洪城郡結城面星南里 面協議員 崔大豐

忠南廣川市 綢緞布木 廣一商店 主 崔殷寧

忠南廣川市 綢緞布木商 廣信洋行 主 崔殷柱

洪城邑東門外 乾材藥局 主 金昌

洪城邑 洪城郵便局長 木野智

洪城郡高道面 警察館駐在所 職員一同

洪城郡龜項面五鳳里 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洪城郡廣川面 海東釀造場

忠南廣川市 株式會社 東一銀行洪城支店廣川出張所 支配人 鄭憲奎

洪城郡廣川面 面長 柳昌浩 職員一同

洪城邑 回生醫院 院長 閔丙禹 電話二二番

洪城驛前 洪城酒造組合 電話六番

洪城郡銀河面大栗里 田英鎭

洪城邑東門外 司法行政代書人 兪廷植

洪城邑 黃惠性

洪城郡結城面邑內里 朴榮信

洪城郡廣川面新溪里 宋仁洙

洪城郡銀河面鶴山里 李璟範

洪城郡銀河面鶴山里 鄭東旭

洪城郡廣川市 李秉漢商店

洪城郡洪東面 金容準

洪城郡廣川市 同春堂乾材藥局

洪城郡結城面衙山里 田溶彧

洪城郡高道面上村里 金駿圭

洪城邑 有志 兪鎭翊

洪城驛前 李容泰

洪城邑 和洋雜貨 文房具 洪昌商店 電話六二番

洪城郡廣川面廣川里 面協議員 柳東秀

洪城郡廣川面廣川里 廣川金融組合 理事 熊倉新太郎

洪城郡高道面上村里 高道金融組合 理事 木村正也

洪城郡廣川市 綢緞布木 普信商店

洪城郡龜項面新谷里 同興組所 主 金東華

洪城郡洪東面八掛里 李上龍

洪城邑東門內 綢緞布木商 金學順商店

忠南洪城邑 洪城公立普通學校 職員有志

洪城邑 金鎬鼎

洪城 無名氏

洪城邑 衡平社洪城支部

洪城邑 李禹植

江景

江景邑 辯護士 趙甫石

論山驛前 論山麴子株式會社 社長 尹吉重

江景釀造株式會社 支配人 尹錫斗

江景中町 辯護士 朴台秉 事務員 申東均

江景 三省醫院

江景本町 辯護士 南廷瓛

江景勞働組合

江景 土曜會

江景大正町 料理店 主 黃錫鉉 電話九番

江景邑本町 鷄龍硏藝舍

江景本町 株式會社 三益社

江景中町 各種時計 蓄音器及 レコード 眼鏡 貴金屬 販賣修繕 金光堂時計店 主 崔炳翰

江景中町 天愛堂時計店 主 尹東瑗

江景中町 ㊀天一運送店 支配人 金炳允

論山郡陽村 姜永植

江景中町 水東藥店 專門藥作 南鮮木工場 主 金敬默

江景西町 朝鮮料理 明月館 電話一八八番

江景錦町 精米所主 朴洋來 電話一五番

江景邑長 坂上富藏

江景 副邑長 韓相舜

論山郡夫赤面外城里 面協議員 金吉培

論山郡彩雲面所 職員一同

江景西町 西仙旅館主 禹鍾喆

濟州

濟州島邑內 崔允淳

濟州島邑內 普文印刷社

濟州島西歸港 西歸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濟州島左面下道里 私立下道普通學校

綾州

和順金融組合 職員一同

道谷面周道里 高聖運

綾州邑內 友淸幸輔

學藝

國際 프로文學運動의展望 (2)
푸로레타리아文學國際聯盟을中心으로
安 漢

그러나 文化戰線에잇서서의 두世界의對立은 社會主義文化와資本主義文化로서만이아니다 그對立은諸資本主義國內에잇서서도存在한다 勿論푸로레타리아ー트의文化的指導權은 푸로레타리아××下에서만 實現할수잇는것이지만푸로레타리아ー트는푸로레타리아ー트이××를獲得할그前×에잇서서그發展이資本主義의包圍內에잇다드래도部分的으로그藝術的文學을建設할수잇는것이다 即資本主義國內에잇서서 一方으로 파쇼化하며頹廢化하여가는 支配的文化로서의 資本主義文化의 存在가그것이고 他方으로社會主義文化의要因을 形成하면서잇는 푸로레타리아文化의 成長이그것이다 資本主義文化는 資本主義的支配의武器로서 役割을하고푸로레타리아文化는푸로레타리아ー트의……파쇼待하야 社會主義文化와結合하면서잇다 그럼으로『戰爭과××』의時期 政治資本主義第三期는 政治的經濟的戰線에 잇서서의뿐만아니라 世界文化戰線에 잇서서도 前의 ×일뿐만아니라 아지ー와 푸로레타리아ー트와의……… 社會主義文化와資本主義文化와의對立의激化 資本主義의悖化 內에잇서서도 뿌르조아와푸로레타리아××文化와의××××

文化 그러면이러한政治經濟文化ーー全戰線의 切迫한時期이다 新局面下의 國際푸로레타리아 文學運動은엇더한 狀勢에잇는가? 各國 푸로레타리아 文學運動이以前에 孤立的으로發展해오든데서부터 現今은運動이 인타나쇼날의 旗下의統一되면서잇다는그것으로 우리는푸로레타리아×× 文學國際聯盟을 中心으로 푸로레타리아 文學運動의國際的發展을보기로하자

二

푸로레타리아 ××作家의國際的運動이國際的統一下에서發展되기始作한것은 一九二七年十一月모스크바에서 第一回國際푸로레타리아作家會議以後이엿다

世界大戰後三年間 國際勞働者階級의直接的×勢는極度로激化되엿섯다 戰前의世界資本主義의諸矛盾의激化는世界主要資本主義國家間의 衝突을惹起하고 戰爭의餘波는資本主義體制의危機를極度로 尖銳化식히엿다 一九一七年露西亞에잇서서의사베ー트××의樹立 一時的이엿스나 항가리 바바리아 波蘭에잇서서의푸로레타리아××의樹立 直接푸로레타리아××의樹立은안이엿지만 獨逸에잇서서의×制의廢止 伊太利에잇서서의 勞働者의工場×領等ーー푸로레타리아ー트는 資本主義

機構를直接으로××식히엿다 이러한푸로레타리아ー트의××는露西亞를除外하고 大部分이偉大한敗北로도라가고마럿지만푸로레타리아ー트의××的進出은푸로레타리아文化(文學)發展에互大한衝擊을주엇섯다 푸로레타리아××이란資本主義에서××主義로의過渡期에導入하는創造行爲이고勤勞大衆에依한……… ××뿌르조아××의푸로레타리아××로의轉化는××主義의偉大한發展을爲한不可缺의條件이엿슬뿐만아니라『푸로레타리아××은 文化에잇서서는 또한 너야만할루비콘江』이고 그것에依하야 社會主義文化의活動的發達이 可能』(뭇보—트)하리라 그리하야사베ー트同盟뿐만아니라 獨逸 佛蘭西 波蘭 항가리 체코스라바키아 亞米利加日本 中國等의全世界主要資本主義諸國及植民地半殖民地에잇서서 푸로레타리아

文學 運動은急速한템포로서進展된것이다 그러나 各國의푸로레타리아文學運動은 初期로서의自然發生的性質의것이엿섯고 또한그것은國際的의階級的『소리다리티』를 스지안흐면안된다는充分한認識을가지고 遂行되엿슴에도不拘하고 國內的인分散的關爭形態에서버서 나지못하엿든것이나 푸로레타리아ー트의階級戰線에잇서서의 如何한分野에잇서서는 同一히푸로레타리아文學運動도 國際的共同××을編成하지안흐면안된다 ××勞働組合 農民組合 敎育勞働者組合 赤色스포ー츠組織等이 콤민테른 푸로피테른 아구헌테른 에도긴테른 스폿친테룬等의國際的組織下에

統一 되여잇는것과가티 世界各國의푸로레타리아文學組織도統制잇는國際的組織下에統一되지안으면안될 다

畵壇의回顧와展望 (2)
朝鮮美術은어대까지왓는가
金 周 經

다만 그輸入期에잇서서 長短의差가잇슴은事實이어니와 新思潮의輸入種別上으로는 內容으로나 形式으로나 大體로보아一九三一年秋期까지도 거의同伴의勢로並行되여왓니고볼수잇는것이나 그發展過程을大部分해볼때에 卽日本이後期印象主義에서 基礎를 닥거가지고 누보쭈ー비슴으로 쓔ー레알이슴에達해온 一面에 푸로美術運動이잇서옴과가티 朝鮮도亦是 이러한階段을恰似히밟어온것이다 이點을좀더밝히기爲하야는

三一年의 一年間에 이러난美術界現象을 參酌함으로足할까한다

辛未年一年間에 열린美展으로는ーー四月十日부터 天道敎紀念館에서 綠鄕會第二回展이잇섯고 同十一日부터는 東亞日報社樓上에서 東美校同窓會第二回展이잇섯고 五月中旬부터열린 第十回朝鮮美展과 六月上旬에 東亞日報社樓上에서 열린 具本雄氏의個人展이잇섯고 가을에와서는 十月十六日부터 徽文高普校講堂에서 第十一回書畵協會展이잇섯고 十一月中旬에는 第一回朝鮮안데판단展이잇섯고 또하나茶屋엘시코에서는具體雄 孫相鳳 李海晉三氏의 스켓취展이 十月中(?)에잇섯다

以上여러美展中에서 一般은 現朝鮮美術이 後期印象派的土臺가 잇섯슴을容易히알엇슬줄밋는다 또한東美展에서는안리마치쓰 죠ー쥬ー루오ー쭈ー비스트系統의數氏를發見하엿스리라 다음으로三十一年度의新記錄으로

特記할만 한것은 具本雄氏의個人展이그하나이니 同個人展은 이제까지朝鮮에紹介되지안엇던 쓔ー레알이슴을처음으로紹介한것이다(然이나氏의 發表하엿든作品全部를쓔ー라는것은아니다 그中에는큐ー비슴과의中間層과 또ー비슴과의中間層과乃至에쓰푸레숀이슴과의 中間層에屬하는作品들도 並陳되엿슴을附記하여둔다) 그外에안데판단이始作된것과茶屋에서展覽會가 열린것도朝鮮으로서는 첫記錄이오 第十四帝展에의羅蕙錫氏의進出은 朝鮮女流로서新記錄이라겟고 同展彫刻部出品으로文錫五氏의進出은 金復鎭氏以後로는 또한처음이다

朝鮮畵壇의 思潮上變遷을밟해오든뜻헤 當時日本人側을좀해본다하면 朝鮮畵壇에第一步로발을들여노앗던 遞田運雄氏는 아즉까지도 後期印象派를支持하고잇슴으로 特記할材料가업고

다음으로 나타난山田新一氏는 元來가지고잇던 後期印象派에서 當時포ー비슴에接近하엿던데서 그대로退却하엿다 佐藤九二男氏는 問題삼을것도 업거니와 갓흔處地에잇는個人으로 石黑義保氏와 따로三木弘氏가 매우모던進出에努力하는모양이다 石黑氏는 임에多分으로볼 手사(新野獸派)等에接近하엿고 間或는 表現主義의最終幕으로 出現한 新即物主義와도 交涉이頻繁하다 그리고 三木弘氏는 그接屬範圍가 매우넓어서 엇던때는 新即物主義에도 接近하고엇던때는 寫實主義로도오고 또엇던때는新野獸派로가고 또엇던때는『메카니슴』이나『꿘포지숀이슴』等과의 接觸도식혀서 怪常한流派를 混合식히는일을안다 따러서이분비들과의 接觸이만흔畵學生들도 間間이러한그림을 發表하는일이잇다 이外에도日本人의손을것처서 紹介된것으로는 第七回朝鮮美展때에 村上美里氏의出品을通하야『쏘락크』의

큐ー비슴 이 그대로紹介되엿다

文人이본서울 天國과地獄
權 煥

나는 이따금 서울서가장繁華하고文化住宅만흔 한거리를이리저리거닐다가 그거름으로西北에솟아잇는 仁旺山으로올나간다 그래서그山의西人쪽한중어리에 墓地의무덤가티숨북숨북 허터저잇는ーー쁘루조아浪漫主義詩的으로形容한다면海濱가튼白沙場에 부터잇는조개껍질가티 아니魔女의乳房가티土幕村의한거리를 이리저리거니러본다 그러면나는어느듯天國과地獄을 한꺼번에 巡禮해보는것가튼늣김이생긴다

……○……

뭇은煉瓦製의二三層洋屋훗근훗근하는暖房裝置機裝의푹신푹신한安樂椅子 푸른琉璃窓門가ー텐그속에서 노래를부르며춤을추며『키스』를하며人間의享樂을다하는 모ー던뽀이모ー던껄ーー나는그러한거리를 지내온거름으로 또이러한거리ーー넓은영만흔집에 살데가업서 이놉흔산한중어리에 엉을파고두더지집가튼그속에서 어린자식들은父母와가티 울을떨고잇는이나라를 바로와볼때에 나는엇지 天國과地獄을 한꺼번에巡禮해 보는늣김이나지안을수잇겟나』

……○……

두거리의生活은 넘어도隔隔하게 永遠히並列할수업슴만치 다르다 天國에사는者가 地獄의生活을 地獄에사는者가天國의生活을 永遠히想像할수도업는것가티 저『文化住宅』거리에 사는者들은 이『土幕村』거리의生活을 永遠히想像도못할것이며 이『土幕村』거리에사는者들은 저『文化住宅』거리의生活을永遠히 想像도못할것이다

……○……

한地球덩이안에도赤道와氷帶가잇다 그러나 그것은幾萬哩나되는 長距離에서漸進的差異로널너저잇다 그러치만이赤道와氷帶보다더 隔懸한差異를가진『文化住宅』거리와『土幕村』거리는 三哩도안되는 서울안에 包在해잇스니 우리는驚異를늣기지안을수업다 우리는참으로 이異常한서울어머니에게 驚異를늣기지안을수업다 한품안에 水火가리和合할수업는두子女를안고잇는우리서울이어머니에게 驚異를늣기지안을수업다

……○……

나는 이氣絶할만치異常한光景을보고는如實히이宇宙는거룩한하늘님의創造하신것이아닌것을새삼스럽게깨달앗다 웨그러냐면 만一거룩한하늘님이이宇宙를創造하엿다면 自己가創造한自己子女를 이러케도 兩極端의生活을하게할 理는업는까닭이다

이土幕村의生活! 그것은確實히人間生活(物質的)의 레ー벨以下의 人間生活이다 人間으로서는生活하지못할生活이다 人間地獄의生活이다

……○……

그러나 그人間들이 自己生活이 人間地獄의生活임을自認하면서 樂天을하고잇스면서 그것을 하는지 或은 全然히自認을못하는지 自己들도 當然한人間生活을하고잇는것처럼 別다른不平不滿의빗도보이지안코 그래도웃을 때는웃스며 노래할때는노래하며 歡歡하게 太陽을바라면서 영속으로 들어갓다 太陽을바라보고 영밧게로나오는 그『土幕村』거리의사람들을 볼때에참으로 人間悲劇의主人인眞據의價値잇는 地獄人間이라아니할수업다

……○……

親愛하는서울의市民諸君들이여! 그대들이 和信이나三越에몰아다니는 그거름으로仁旺山한중어리의 土幕村으로가보라 그러면그대들은天國과地獄을 한거번에 旅行할수잇슬것이다 아니다仁旺山한봉오리에올나가 바라보면 한눈으로는天國 다른한눈으로는地獄을 한거번에볼수잇슬것이다 그래서 비로소『眞正한서울』을 水火와가치 永遠히和合하지못할 두다른子女를 한품속에 안고잇는 異常한서울어머니를참으로알수잇슬것이다

今後朝鮮의劇運動
鄭 寅 燮

고할수업다는意味에잇서서 家庭劇學生劇民衆劇의三分野를同伴하야 나아가지안흐면안될것인줄생각한다

그럼으로 滿天下의『아버지』『어머니』『형님』『누의』『선생』『名士』들에게願하노니ーー당신들의靑年男女子弟를爲하야 또는당신自身을爲하야 참다운劇을支持하라! 아모리매를때려도 劇場의大多數는 靑少年學徒며 그들에게그러한 禁止를일삼는 年長者自身들도娛樂을求하지안는가? 이러한커다란事實을否認할者누구인가? 우리는『참다운劇을要한다 그理由는만코 깁고또한크다 그러나 善後策은極히明白하다 그것은곳힘자라는데까지『家庭劇,學生劇을同伴으로하야 眞正한新劇을樹立하되民衆劇에까지 延長하여야한다』

ーー一九三一를보내면서ーー (完)

一等當選戲曲 大弓 (3)
我 愚 作

(唐은鼻변말하며 일변조화휘장(造花徽章)을 쓰내서李의가삼에달아준다 李는뒤집을집는때로 唐에게휘장을 달게한뒤에 朱億의편을향하야 아래위를훌터보며 나무라듯히 뭇는다)

李 『그런데 자네는 여긔 엇더케왓는가?』

朱는李의시선(視線)을 피하려는듯이 먼곳을보면서 마지못하여 대답한다

朱 역사(役事)를 맛텃담니다

조롱하는 표정으로 빈정거린다

李 『하하자네가 그럼여기장식하는걸 맛텃단말이지 허허 朱참판도 인제는 청가하겟군 커덧케부조런한 아들을 두엇스니 부자가안이될수잇나? 자네집 해주수리공사(海州水田工事)도 불원간준공되리라든데 그준공식장식도 자네가징부할터라는가?』

朱는암말도업시 정자뒤에서오색모ー르를 쓰내서천판(天板)에 늘이기시작한다 李는朱를한참노려보다가 다시唐을향하야말한다

李 『그럼 唐창패내왕교원을맛나기로하겟소』

突樂이웃나자 拍手소리와紅이

王은다시亭子에올나가 讚하고 右便으로退場

王 『이것으로 餘興도웃츰니다 고只今부터는(손들을어 山믯을가라치면서) 저쪽에多少茶菓를準備햇스니여러분가치가서서 변변치못하나마만히잡수시기를바람니다』

右側에서 다시拍手소리多數한 사람들이起立하야 退場하는소리가들닌다 王도그騷音속으로뛰여들어간다 唐은그騷音이멀ーー리 사라지는곳을바라보다가 돌아서서坦坦한左편山길을향하야손을치며불은다

唐 『여보ーー여보 이리오시오』

山길로부터 朱億이登場한다 唐은朱를재촉하면서 또 와중을낸다

『어서 서드르시오 이게글세무슨짓이오? 남의일을맛허가지고 이럿케無責任하게하는법이 어듸잇소?』

朱는未安하다는듯이 그러나너머甚한것이좀不平시럽다는얼골로辨明한다

『大端히未安하게 되엿슴니다 인제萬國旗와 모ーㄹ만들이면다됨니다』

左側前面으로부터李弘俊이 갈지字거름으로登場하야 唐의압헤가서 뒤집을집고서다 한五十된돈이면天下도살수잇다고밋는영감이다

唐 李에게人事한다 朱는두사람을바라보고서서잇다

唐 『令監오십니까? 감사합니다 請狀을보내드렷더니보섯겟지요?』

李는唐의압흘처다보다가 슬쩍낫츨돌리며말한다

(王) 『여보게이게글세무슨일인가? 숙련(熟練)한사람을맛기겟대도한사하고 고집을세우더니 이장식은대체인제쓰자는말인가?』

王 (빙그레ー우스면서 대소롭지안타는듯이)『무얼 얼마안남엇습니다 그런』

唐 (어이업는드시 눈을썸벅썸벅하며)『자네는 배시속도펵은유하네 여보게그건그럿코자비李홍준령감낫낫나? 학교용지(用地)때문에나보고노상야단을치다가 금방 내려갓는데못봐나?』

王 (종긴장해지면)『못보앗서요 그렁감정이가 여기까지와서 야단을처요? 그싸짓령감쟁이 내버려두서요 내 당냥하리다 아모것에도쓰지안코 그냥내버려두는모래밧데다가 콩크리트로다처서학교운동장을만들어노니깐엉세를내라고? 그대로내버려두는영을쏫엇게 리유하는게무에 그럿케앗가워서?』

新刊紹介

三千里(新年號)主要目次 合法運動과非合法運動論爭 半島突進隊組織潮動 내母校와恩師 나의海外亡命時代 大望이오는朝鮮에태어난다면 結婚은果然戀愛의墳墓乎 全世界人의紹介等 發行所京城貫鐵洞五十九番地 振替京城四三八四番 定價三十錢

◇批判(新年號)主要目次 失業運動에對한提議 各國保候志士討伐論其他 文藝 小說 詩等 發行所京城松峴洞四八의一號 振替京城一五九〇二番 定價三十錢

◇第○線(時代公論改題)(新年號)主要目次 世界政局難局 總督府歲出의諸特徵 資本主義諸國家의衰退 國際的으로發展하는쏘비엣ーㅌ經濟建設 其他女人小說 文藝詩等

◇朝鮮鐵道一班(昭和七年度) 發行所京城古市町四三番地朝鮮鐵道協會 振替京城一一〇三八番 定價七十錢

「밤의천사」

地主三千餘名이 水組加入에 反對

元山起洑組合에서大會열고 當局에陳情을決議

【元山】 각지에서이러나는수리조합(水利組合)반대의소리가놉흔이때에 원산에 잇서서도 또한수리조합 반대의운동이 시작되엿다 지금으로부터 이십사년전에 원산에잇는리병규(李秉珪)리창옥(李昌玉)량씨외백여명은원산기보조합(元山起洑組合)을조직하고안변군(安邊郡)남대천(南大川)을리용하야학성면과배화면(鶴城面及培花面)에잇는오백여 정보의 토지를개간작답하야 일반지주작인간에 만흔편익을 주어나려 오든바금년녀름에 남대천개수공사를 함에 이르러 동긔보조합의인수구(引水口)를막어버리고일반지주와작인들에게향하야안변수리조합(安邊水利組合)에가입하도록 책동을 한다하야 동긔보조합과 일반지주 작인들은 긔괴수리조합에가입을 반대하기위한 대책을강구코저 지난삼십일에 이르러동긔보조합장 리병규씨 집에서지주 작인대회를열고 최후까지 반대코저 대책을강구하는 동시에 총독당국에까지 진정하기로결의하엿다 오십명의 조합원과 약삼천에달하는 일반지주와소작인들에 사활문제라 하야 일반은크게주시하고잇다한다

水稅地主負擔의 檄文을撒布

咸興上朝陽面에서

【咸興】 지난십이월이십사일에 함주군상조양면상한리(咸州郡上朝陽面上閑里)에는 농민대중에게 격한다는 제목하래에수세를 지주가부담할것등 조목을모필로포스타를부호수모(朱某)의집머문과 면소(面所)주재소(駐在所)등 사오처에 첨부한사실이잇섯는데 이사건으로 상한리주재소에서는 함흥경찰서 후원을어더가지고 칠팔명을검거하여 엄중취조하든중 리방현(李芳鉉)외 세사람을 함흥경찰서로 이송하엿다한다

梅山農民夜學開講

【龍岩浦】 룡천군북중면매장동(龍川郡北中面梅長洞)에잇는매산농민사(梅山農民社)에서는지난일일에 매산농민야학을 개강하얏다는바 야학하는 농민이남녀합 오십여명이나되여 대성황이라는데 그정소와 강사는다음과갓다

場所 梅長洞集成齋
講師 金聖玉、金致寶、金景柱

信川夜學院 卒業式擧行

【信川】 십여년의장구한성상을만난을배제하고 꾸준히계속하여나오면서 수만흔 영재와준총을길너내여 돈업서 학교에가서 배호지못하는 가여운농촌의무산소년들에게 감사한 역할을다하고잇는 신천야학원 에서는이번에 제륙회졸업을 미지하게되여 지난 이십사일에동교대강당에서 성대한 졸업식을거행하엿다는데 그중에는리형석(李亨錫)(一七)군과가튼각학과 구십점이상의 우등생까지 잇다는바동야학원의 현재학생은 백여명으로사회의기대가크다한다

咸北魚油賣渡 協定이成立

문제만흔과잉어유문제해결 當業者意向이注目處

[illegible]

避難同胞歸還 每日三十餘名

[illegible]

作權移動으로 地稅納付躊躇

[illegible]

언을 하엿다는데 지난이십사일경에정도조에 대한 일반작인의부족납입여 일반작인에게 대하야 최후로 소작권해약 수속을단행엿승으로 지세납긔가 림박한차제에잇서 일긔가 림박한차제에잇서불과지세를 준비중이든 일반작인들은 그래도들 취하기가주커덩으로 이미준비중이든 지세도불납상태에 웃치고 잇는현상이라는바 이로인하야 징수당국에서는큰영향을밧고잇다한다

慈城의熊禍

평북자성군 자하면 누목동에지내는박필문(朴弼文)은리향섬과 이란사람과가티 지난십삼에 동군니평면 평상동삼봉제측에 오소리 사냥을갓다가 구새든돌나무속에서 곰이나와물어서 현장에서 절명되엿다고한다

失言한雇員을 警察에拘留依賴

고원이실언햇다고군수가의뢰 梁山郡守의所行

【梁山】 지난이십팔일밤량산에서 화류장(花柳場)으로 유명한료리점영락정(永樂亭)에서일대활극이 연출되엿다는데 그내용을드르면 그날밤은 권량산경찰서장한야(閑野)씨의석별연을모려관에서 맛치고 제이차회가권괴 영락정에서열리게되어 량산군수、한야전서장、경부보군속면장등 륙칠인의 관공서원이모여 잔을박구든지음 현직군고원권모(權某)가지나가든길에가든군속모를맛나 일성 혼게를밧게된더인데 권씨는 긴치안흔밥청에 술잔먹은 남어지안석에드러가 군수를보고 우리들의출장려비나주오 우리들의 출장려비는 지불치못하며 왼돈으로 그리술먹기만잘하느냐는말에 불능타는의미로 권군을책하자 취중에 더욱흥분되어 일장의 활극이 떠러졋든것이라는데 권씨는 착석하얏든 경찰서원이 경찰서로몰러다가류치장에서 하로밤을 새우고석방되엿다는데 군수로써자긔부하를 취중의 잘못됨이잇섯다하야 류치장으로、처분한것은 너무나 가혹하다하야 일반시민의여론이 비등하다

全國地主 聯合會召集

◇…금춘이월중순경에 京城昭格洞서開催

【羅南】 함북 수성 수리조합(咸北輸城水利組合)의발긔로전국수조지주련합회 (全國水組地主聯合會)를소집한다함은이미보도한바와갓거니와전국각지주들은 좌긔시일내로 긔여히좌긔장소에신청하여줍이조켓다한다

開催地 京城
時日 一九三二年二月中
申請期日 同 一月末日外지
申請場所 京城府昭格洞三十七番地

二八少女의 書畵天才

安城鄭用姬孃

【安城】 나희십칠세밧게안되는 묘령처녀로써 글씨와그림을 권문업주가 부럽지안케 그리어 그재주가 특히 놀라운녀청이잇다 그는 본적을음청군삼성면(陰城郡三成面)에두고 현재안성군안성면서리(安城郡安城面西里)에거주하는정용희(鄭用姬)(一七)양으로양은 일즉이 고향인음성(陰城)서 보통학교를 졸업한바그재주는 일반의 만흔칭송을바덧스나 넉넉지못한 형세요더욱가정이 완고한탓으로 상급학교에를가지못하고 틈을 타는대로붓과조희를벗삼어 글시와 그림을그리고 쓰기에 노력하엿다는바실로 묵화와 문필이 놀랄만하야일반의칭송이 놉다하며 더욱이본보안성지국(本報安城支局)에서는 동양의백여점되는 묵화로써전람회를 개최코저 준비중이라는바오는일월중순경에는개최되리라한다

(사진은 정용희양과본보안성지국에보낸양의필적)

安東縣七滸道서 匪賊一名逮捕

【安東縣】 지난삼십일오후한시경 안동현경찰서 서원삼명은 칠도구(七道溝)방면을순찰경계중 비적(匪賊)이명을 발견하고 즉시체포하려한즉 비적은 도주하면서 권총을 발사하려함으로 경관대는 즉시발포하야 일명을 부상식힌후 체포하엿는바 그기일치말이엇슴을보아서는별농대의일미인듯하다고

口頭應諾否認코 敷地料請求訴訟

면협의회선분개하야응소결의 長城北二駐在所敷地問題

【長城】 전남장성군북이면(全南長城郡北二面)신평리(新平里)은지난십월일일부로 동면신평리 김상호(金相鎬)로부터동면경찰관주재소 부지임대료(官駐在所敷地賃貸料) 대정십사년 십일월일일로 소화륙년십일월일일까지 륙백삼십삼원 칠십오전에대한지불명령(支拂命令)을밧고 지난달이십일에 이의신립을 하고 십이월칠일에동면협의회의(協議會議)를 개최하엿섯는데 의장인면장 변남연(邊楠淵)씨로부터 대정십삼년분에원고 김상호씨로부터 동주재소 수석(首席)좌야긔일(佐野基一)과순사강청규와 동면서긔 김용정(金鏞鼎)과 면장과한가지로 동면사무소에서 긔지(基地)로 이배평만 긔부해달나고 교섭한결과 권긔김상호씨는 자긔의사정이 엇더한관계로인하야 긔부는할수업스나 사용반은 무료로되겟다하야 허락함으로 쉬면에그리유를써서 날인을 구한즉그때에발변색을 하면서 무료로사용을 허락한다 하엿스면그만이지 자긔를 그다지신용안느냐고 반박을하게됨에 권긔 경관들도 김씨가 신용상 한번허락하고후일에 다른문제야 발할리유가업스리라고 그대로주재소를 건축해달라하야 지어준이후 륙년간이나되도록 하등놀이업다가 이케와서 이러한거조를 행하게되엿다는 보고를밧은 협의회원들은 구두로라도 신사적으로무료사용을 허락을 하는것은 넘우도무리하다하야 분연히이를 일축하고 면민의공정한여론과 증거가잇는이상 어대까지응소하야 항쟁하기로 만장일치로결의를 하엿다는데 재일회구두변론은 지난팔일에잇섯고 증인으로는 면으로써 권긔주재소수석이엿든 좌야긔일과 순사김인을 신청하얏다는바 현주재소에서는 본건태랑(橋本健太郞)과 그때에서긔로잇든 강성구의량인을 신청하얏다는데 재판이 엇더케될는지 량편의경과증인의 립증이 매우주목을끌고잇다한다

密陽水道工事 二十八日落札

【密陽】 지난이십팔일에밀양읍사무소에서는 수삼년내로 주민이 갈망하든 밀양수도공사를총공비 이만삼천오백원에 부산복도(釜山福島)와밀양상남예림신갑수(密陽上南禮林申甲秀)양인에게락찰되엿다고

地方人事

▲矢島友太郞氏(元平壤地方法院安州支廳判事) 退官人事次去卄八日本報安州支局來訪
▲鄭雲成氏(泥山郡守)赴任人事次本報泥山支局來訪
▲權泰永氏(前楊平郡廳郡屬)京城大昌興業株式會社에榮轉告別次去十二月二十八日本報楊平支局來訪

不死鳥 (95)

沈熏作 安碩柱画

두녀성 (七)

흥룡이가 감옥에 류치되지 어느덧 열흘되는날이돌아왓다 검사는 령장을 집행한지열흘안으로 피의자를 예심에부치거나 면소를식혀 석방을하거나 두가지중에 결정을지을의무가잇는지라 오는날 당국자와 재판소에출입하는 신문긔자들까지 그하회를알고자 몹시 긴장되엿다

『증거야(中略) 강흥룡이가튼 ××한사람이 나오기를뎃네』

『그래두누가아나? 단독행동으로만 간주햇슬것가트면직접공판에 부칠는지두모르지』

『강흥룡이사건이야말로 수수꺽기야 당초에 사건의진상을 알수가잇서야말이지』

검사국복도에서는 각사 신문긔자들의 의론이분분하엿다

흥룡이를 검거하야 큰사건이나되는듯이 검사국으로떰긴경찰서에서도 형사들이 아츰부터모혀안저서

『난 암만해두 시원치안허 그러케애를써서 넘긴자가불긔소로나온나면……』

『(中略) 고만이지케가승컨입지를 혈렌가?』

주임도 출근하기건에 난로를 둘러싸고안저서 숙덕거린다。그들보다도 몃시간동안이면 결정될흥룡의 운명에대해서 더한층 애쓰초하는사람은 덕순이다。이야기는 뒤밧귀나 덕순이는 그날도여전히 꼭두새벽에일어나서 밥을지어가지고 걸어서십리나되는 감옥으로나갓다。차입는 여전히 바드나 오늘로 나오고 못나오는 소식은 알길이업다。그길로 정농 마루턱이 재판소까지 허위단심으로 달음질을 쳣다。그러나 재판소에는 마당에 눈을쓰는하인과급사들밧게는 관겁사는 아직출근도아니한모양이다。덕순이는 발이 쫑쫑얼어서 종종거름을치면서 회ㅣ6현 재판소구내를 여긔저긔 기웃거리면서시간을 보내더니 그야말로일각이여삼추라 붉은눈우에붉앗케 몰들어오는 아츰해가 다름박질을 햇스면 조흡상십다。일어부튼 영바닥을 딸굽실하듯 구두색리로 훔이며 초조한 마음을 가라안치기는참으로 힘드는노릇이엇다

한나절이나 기다린듯 하것만 재판소안의 시계를치어다보면 그제야 여덜시요 여덜시반이다。좀아터진 재판소류치장속에서 법정에호출되기를기다리는 죄수보다도 더갑갑하고 지루하엿다。

『아범서 오셧습니까?』

등뒤에서 뜻밧게 우렁찬남자의 목소리가들렷다。고개를 휘도리키니 경찰서에서 가끔맛나든 신문긔자다。

그는 가방을들고 황급히검사국으로 들어가려다가 덕순이는 반색을하며

『무슨일이 생겻습니까? 이러케 이른아츰에 웬일이서요?』

정다히물엇다

『무슨일이라니요? 오늘흥룡씨가 나오는날이 아닙니까?』

『귀도 엇저녁신문을보고 알엇는데요 궁금해서 새벽버텅 오긴왓서두 어듸오늘해안으두 나올것갓습니까?』

『글세요 나두지금 그일때부에 일속암치 출동은햇습니다마는…… 어듸검사국으로가서 단단히 떠봐야 하회를알겟습니다。나오게되면야 수속도좀 복잡허구눈치만 보아두 짐작이되니깐요 출시만 잠간만더기다려보시쇼』

신문긔자는 황새가튼 다리를 재판소구내로 성큼성큼세어놋는다 재판소출입으로늙어가며 가진경험을싸은 그신문긔자조차 『꼭 나온다고는장담을못하고 우물쭈물하는것을보니가승이 나려안는다 그러나오늘 내보낼것가트면 벌서엇저녁에 내정이되엿슬터이니저사람이 다녀나오기만하면야좌우간 궁금증이나 풀수잇스리라하고 여전히 신문긔자가들어간 문만들어지도록바라다보고섯다 (나오긴 될나와? 그러케 쉽사리나오면 사람이살게) 하면서 연방 속으로는억지로라도 흥룡이가 출옥한다는가정적(假定的)사실을 부인하여 힘을드렷다

들어간지 한시간이나 지난뒤에야 신문긔자의 그림자가 침침한 복도로부터나타낫다